

# 세플러+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2013 Winter Vol.35



## In Schaeffler

06

미래의 가치

Charity, 베품과 나눔  
가치를 파는 시대, '생존'할 것인가  
'공존'할 것인가

16

체험 1박 2일

안산공장 생산팀 스노보드 체험



## For Life

24

세플러인 탐구생활

나를 머리 아프게 만드는  
내 삶 속 갈등 상황

32

힐링 가족 캠핑

겨울바다의 감성과  
낭만 있는 자리 카라반의 추억



## To Communicate

40

남편의 자격

부부관계와 직장생활을  
동시에 행복하게 하는 방법

50

새로운 시선

세플러의 손과 발이 될  
새 일꾼들

발행일 2014년 1월 15일(통권 제35호)  
 발행인 김재현  
 편집인 이법진  
 발행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4층  
 Tel. 02.311.3019  
 기획·디자인 (주)디자인페이지  
 Tel. 02.324.9422  
 출력 하우두 그래픽  
 인쇄 은성프린팅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표지이야기**

이번 '따뜻한 시선'에서는 세플러코리아 직원들과 직원 가족,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신수정 사원의 자녀 김가영 양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연탄을 나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04**  
**Cover Story**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위기 극복해야”



**06**  
**미래의 가치**  
 Charity, 베품과 나눔  
 가치를 파는 시대,  
 '생존'할 것인가  
 '공존'할 것인가

**08**  
**세플러를 찾아서**  
 부드러움과  
 느낌의 미학을  
 완성하는 세플러



**36**  
**꽃중년 프로젝트**  
 둘둘 말기만 하면 끝?  
 센스 있게 목도리 매는 법

**38**  
**프로에게 배우는 열정**  
 백번 듣는 말보다  
 한번 타보는 말이 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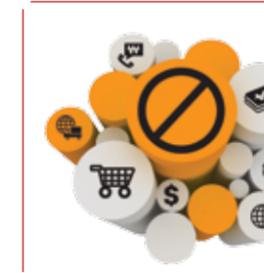
**12**  
**원더풀 베어링**  
 Competence Center  
 Acoustic

**14**  
**나의 S 다이어리**  
 세플러코리아 서울사무소의  
 워킹맘 3인방



**40**  
**남편의 자격**  
 부부관계와 직장생활을  
 동시에 행복하게 하는 방법

**42**  
**생생정보**  
 카드업계 제휴카드  
 대거 정리



**16**  
**체협 1박 2일**  
 안산공장 생산팀  
 스노보드 체협



**20**  
**세플러 애정촌**  
 오색 불빛 가득한 동화  
 축제에서 맞이하는  
 Happy! 메리 크리스마스

**24**  
**세플러인 탐구생활**  
 나를 머리 아프게 만드는  
 내 삶 속 갈등 상황

**46**  
**따뜻한 시선**  
 세플러코리아의  
 연말 사회공헌 총정리



**50**  
**새로운 시선**  
 세플러의 손과 발이 될  
 새 일꾼들

**53**  
**Schaeffler Focus**  
 수급팀 용미정 사원,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

**26**  
**고민 상담소**  
 직장생활 스마트하게  
 도와주는 필수 어플 추천

**28**  
**Happy Birthday**  
 한편의 뮤지컬과 함께하는  
 감동의 순간



**32**  
**힐링 가족 캠프**  
 겨울바다의 감성과  
 낭만 있는 자리  
 카라반의 추억



**54**  
**Schaeffler News**

**58**  
**Schaeffler Hotline**

**59**  
**나도 기자다**  
 • 서울사무소  
 Business 기획팀  
 김형덕 차장  
 • 서울사무소  
 중부직납영업팀  
 정진호 대리



##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위기 극복해야”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 스스로가 설정한 경영목표에 크게 미달함은 물론 매출이나 이익 측면에서 2012년에도 크게 못 미치는 저조한 성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경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매출이나 이익의 저조함도 큰 실망이었지만 지난해는 우리의 업무 프로세스와 의식 면에서 더 크고 많은 문제가 충격적으로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아직도 대단히 높은 공정불량률과 극히 낮은 설비가동률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고치고 개선하기보다는 숨기고 개선을 거부하는 행태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품질규격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 회사에 대한 낮은 평가와 고객의 불신을 초래하였고 엄청난 고객 불만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객으로 하여금 경쟁사를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경쟁자뿐 아니라 최근 새로 시장에 진입한 경쟁자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초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은 곧바로 수주 감소로 이어져 최대 2~3년 후부터 우리의 판매와 생산 감소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익률을 희생하면서 판매 가격을 낮추어 제안하고 있음에도, 이 새로운 경쟁자는 이미 자동차용 부문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누려오던 많은 제품에 대한 새로운 입찰에서 우리와 거의 같은 비율의 수주를 이루며 우리 영역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산업용 부문에 대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사이, 우리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경쟁자는 과거와 같이 검토만 하다가 실제 작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작은 규모의 시도만 하다가 중단한 경쟁자들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경쟁자입니다. 수십 년간 자동차용 Wheel Bearing을 생산해오면서, 세계 여러 시장에서 SKF, Koyo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누르고 축출해낸 실력 있는 업체이며 우리의 최대 고객과 특수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경쟁만으로도 우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법률적 구분으로는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많은 고객에 대하여 “을”이 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대기업으로서 근래 더욱 강력히 전개되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공정거래 확립, 경제민주화의 슬로건 하에 추진되는 협력업체 및 대리점과의 상생 등 정부 및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요건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협력업체와 대리점 스스로의 경영상 어려움도 살피고, 고객에 대한 최대의 만족을 제공하는 현명한 생각과 합리적인 행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에는 점점 각박해지는 경영 환경에 대한 적응과 함께 강력한 경쟁자에 대한 대응, 부족했던 품질과 생산성 혁신, 고객의 신뢰 회복을 동시에 수행해나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플러 그룹의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내부적인 격변에도 적응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서 규정된 사양과 요구사항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생산 공정에서 도면 및 작업 지도서, 검사 기준의 모든 항목이 정확히 또한 빠짐없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지원 및 행정업무의 모든 면에서도 규정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모든 Guideline을 철저히 지켜주시시오. 특히 최근 다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Compliance Guideline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과거의 관행을 핑계로 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업무에서 효율의 대폭적인 향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생산부문의 효율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어야 합니다. 짜임새 있는 계획과 설비 및 자재의 준비와 관리, 효과적인 진행 관리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체질화해야 합니다. 수년간 추진해온 셋업 타임 단축 활동은 조정 시간을 포함한 셋업 타임이 10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수준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우리 앞에 닥친 도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올해가 회사 생존의 기로임을 마음 깊이 새겨,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 협력함으로써 2014년에는 매출 10% 초과 달성, 고객 불만 50% 감축, 생산 Output 향상 40%를 추가적인 자원의 투입 없이 성취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 기대는 우리가 수년간 이룩해온 매출 신장, 재고 감축, 셋업 타임 단축 등 여러 활동에서와 같이 여러분의 열정과 정성을 통하여 충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2일

세플러코리아

대표이사 김재현

# Charity

베픔과 나눔  
가치를 파는 시대, '생존'할 것인가 '공존'할 것인가

## 베픔과 나눔의 가치가 기업에 부여하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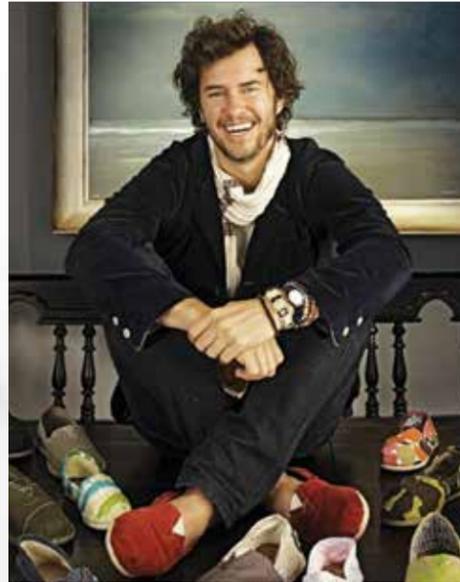
아르헨티나에 놀러갔다가 신발이 없어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상처투성이 발을 보게 된 미국 청년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신발(Shoes for Better Tomorrow)'이라는 의미가 담긴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가 바로 현재 세계적인 신발 회사로 자리매김한 탐스 슈즈(TOMS Shoes). 탐스 슈즈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발하다. '신발 한 켤레를 팔 때마다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한다'는 것. 이 나눔의 정신이 만들어낸 힘 때문일까. 전 세계 패셔니스타의 필수 아이템이 된 탐스 슈즈는 2006년도에 1만 켤레, 2010년에는 100만 켤레, 2011년에는 200만 켤레가 판매됐다.

탐스 슈즈가 판매한 것은 그저 신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신발에 담겨진 베픔과 나눔의 이야기였다. AT&T, 노드스트롬 같은 거대 기업이 적극적으로 탐스 슈즈의 행보에 참여하게 된 것도 그 스토리가 전하는 감동 때문이었다. 탐스 슈즈의 이야기는 베픔과 나눔의 가치가 기업에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 나누면 얻게 된다

'1/2 프로젝트'의 사례 역시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나눔과 베픔의 가치를 통해 세상과 공존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1/2 프로젝트'는 김성준 씨가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먹을 물이 없어 가축의 소변을 받아먹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디자인을 고심하면서 박지원 씨와 의기투합해 이루어졌다. 물 한 병을 사먹을 때마다 한두 모금의 물을 저축해 나누는 디자인의 물병을 개발한 것. 이 물병은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할 정도로 호평을 받았으며, 곧 '1/2 프로젝트'는 다른 상품으로까지 이어졌다. 반달 모양의 초콜릿을 2천 원에 판매하여 그 절반인 1천 원은 아이티 지진 피해민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도미노피자와 협약을 통해 피자 한 판 가격에 피자 반판을 넣고 나머지 반판의 빈자리에는 나눔의 메시지를 넣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같은 가격에 절반만 들어있는 상품이지만 의외로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베픔과 나눔의 가치에 동참하는 착한 소비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기 때문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들은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탐스 슈즈 창립자 블레이크 마이코스키. 신발 한 켤레가 팔릴 때마다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똑같은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하는 탐스 슈즈의 'One for One' 기부 철학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단순히 생존할 것인가, 함께 공존할 것인가

베픔과 나눔을 실천하는 일은 단순히 기업이 사회로부터 얻은 잉여를 다시 사회에 되돌린다는 소극적인 의미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향후 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된다. 이미 소비의 기준은 상품의 기능과 디자인을 넘어 기업의 이미지와 가치가 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이제 상품이 아니라 가치를 팔아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고, 생각하는 제품만큼이나 기업의 이미지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착한 기업이 성공한다>의 저자 필립 코틀러는 앞으로 기업의 생존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까지 말한다.

"(턱걸이를) 한 번 할 수 있는 사람은 50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을 하지 못하면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되죠." <힐링캠프>에 출연했던 차인표는 베픔과 나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턱걸이를 예로 들었다. 요지는 나눔이 그다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작은 실천 하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어찌 보면 작은 부분인 베픔과 나눔이 앞으로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지목되는 이유. 바로 베픔과 나눔의 정신과 거거서 오는 기업 이미지가 기업의 생존 여부마저 뒤흔들 수 있는 큰 힘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 감속기 시장 1위 기업 삼양감속기에서 세플러를 만나다 부드러움과 느낌의 미학을 완성하는 세플러

안산공장 생산팀 조성호 사원

강함이나 빠름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다. 특히 전동기를 통해 기계에 전달되는 회전력은 빠르고 강한 힘이 요구될 때도 있지만 적절한 속도와 힘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 기기 시설에는 거의 감속기라는 기계가 적용되는데, 이 감속기 시장에서 단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업체가 바로 삼양감속기다.

### 산업의 전반에서 숨은 일꾼으로 자리매김하는 감속기

삼양감속기의 주요 제품은 산업용 감속기와 전동기이며, 이는 다양한 전방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건물용 엘리베이터 및 자동 주차시스템, 물류용 컨베이어시스템, 제철 플랜트용 이동대차 등을 들 수 있으며, 가장 큰 수요처는 자동차, 건설, 중장비 등의 전통산업이다. 최근에는 산업용 로봇을 비롯한 자동화 설비, 반도체, LCD, LED, 섬유기계, 의료기기 등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감속기는 다양한 종류의 기어(Gear)를 조합하여 속도를 변환시켜 주는 장치로 주 구동원인 전동기의 회전수를 필요한 회전수로 감속하여 더 높은 토크(힘)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동력 전달 핵심부품이다. 이러한 감속기에는 고정밀 구성부품의 고속 회전을 보조하는 베어링이 적용되고 있으며, 마찰 토크가 적고, 저소음, 저진동의 품질을 확보하고 내구수명이 긴 베어링이 요구되고 있다.



#### 삼양감속기

삼양감속기는 1967년 설립되어 46년의 업력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형 감속기 시장에서 국내 1위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전동기는 2010년 정부의 최저효율제 시행에 따라 고효율의 에너지 절약형 전동기를 자체 개발하여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다양한 산업의 동력 전달기 핵심부품을 개발하여 플랜트용 기어박스, 신재생에너지 산업용 핵심부품, 전기차용 트랜스미션 등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친환경 고효율의 신제품인 헬리컬 베벨 감속기, 유성 감속기를 개발 및 출시하여 고객의 사용 편의성과 비용 절감에 큰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다양한 감속기 안의 세플러를 보다

삼양감속기는 그 생산제품군이 다양한 만큼 공장 내의 생산과정 또한 여러 분야로 나뉘어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살펴보기 위해 우리 회사 안산공장 생산팀의 조성호 사원이 함께 자리했다. 입사 3년 차인 조성호 사원은 회사 내에서 단조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평소에도 자신이 만들어낸 제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다른 업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한다.





감속기 생산 과정을 꼼꼼히 둘러보고, 삼양감속기 생산 본부 유일현 직장의 안내에 집중하는 조성호 사원



(왼쪽부터) 삼양감속기 구매팀 서윤수 차장, 중부직남영업팀 임태홍 차장, 안산공장 생산팀 조성호 사원, 삼양감속기 구매팀 김철홍 주임



**최고 품질의 베어링을 생산하는  
세플러코리아의 제품을  
감속기 시장 1위 기업  
삼양감속기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크게 느낀 조성호 사원.  
세플러코리아의 다른 직원들도  
함께 자부심을 느껴보길  
바란다면 소감을 밝혔다.**

Interview +one

안산공장 생산팀 **조성호** 사원



우리 회사 안에만 있다가 다른 회사에 와보니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베어링이 감속기에도 들어간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감속기 시장 1위 기업에서 우리 제품을 쓴다고 하니 자부심이 큼니다. 앞으로 매번 똑같이 기계처럼 일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속기는 실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다 보니 그 종류와 크기도 다양했다. 특히 놀이공원의 대형 놀이기구에 적용되는 대형 감속기 제작 현장에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물론 이렇게 다양한 제품 모두에 세플러의 베어링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삼양감속기는 세플러의 베어링이 갖고 있는 3低(低마찰손실, 低진동, 低소음)의 장점을 고정밀도 제품에 채택하여 3高(高효율, 高품질, 高수명)의 제품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3高 향상을 통해 국내 1위의 감속기 회사에서 2020년 글로벌 Top3에 진입하는 회사로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고객에게 신뢰받는 고품질의 제품을 위한 선택

감속기 시장은 현재 치열한 접전 중이다. 규모나 품질 면에서는 삼양감속기를 위협할만한 업체가 아직 없지만 가격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기업이 늘어나다 보니 시장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외부적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방법은 오직 제품의 품질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것이 최선. 삼양감속기는 1967년 회사 창립 및 감속기 국산화 초기부터 KBC베어링을 채택하여 사용하였으며, 1995년부터 사용물량이 증가하면서 직거래 형태로 거래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상생발전하는 좋은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헬리컬 기어드 모터와 워م 감속기에 세플러의 베어링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입력과 출력축의 자중과 축에 걸리는 하중을 지지하면서 축을 회전시키는 부분에 베어링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볼베어링, 테이퍼베어링, 스페리컬베어링 등 다양한 제품군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품질 부품을 채택함으로써 제품의 성능은 물론 내구수명까지 확보하여 고객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삼양감속기의 제작 공정 전체를 돌아본 조성호 사원은 하나의 과정도 허투로 보지 않았다. 자신의 업무 현장에서 늘 맡은 일만 소화하기 바빴던 것을 되돌아보며 작은 반성의 기회로 삼았다고 한다. 무엇보다 자신이 만드는 제품에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항상 더 좋은 품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마음먹었던다. 앞으로도 자신이 만든 제품이 파트너사에 와서 그들의 가장 자신 있는 강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의 마음가짐이, 두 회사의 더욱 돈독한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Noise  
Vibration  
Harshness

# 세플러의 기술력으로 NVH를 잡는다. Competence Center Acoustic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동차의 안락감과 편안함이 점점 더 추구하고 있다. 심지어 SUV 구매자들도 대형 고급 승용차 같은 수준의 승차감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NVH는 어느 정도 운전을 경험한 운전자들이라면 차량을 구입할 때 고려하는 필수 사항이다. Competence Center Acoustic은 세플러의 기술력으로 NVH를 저감시켜 운전자들의 주행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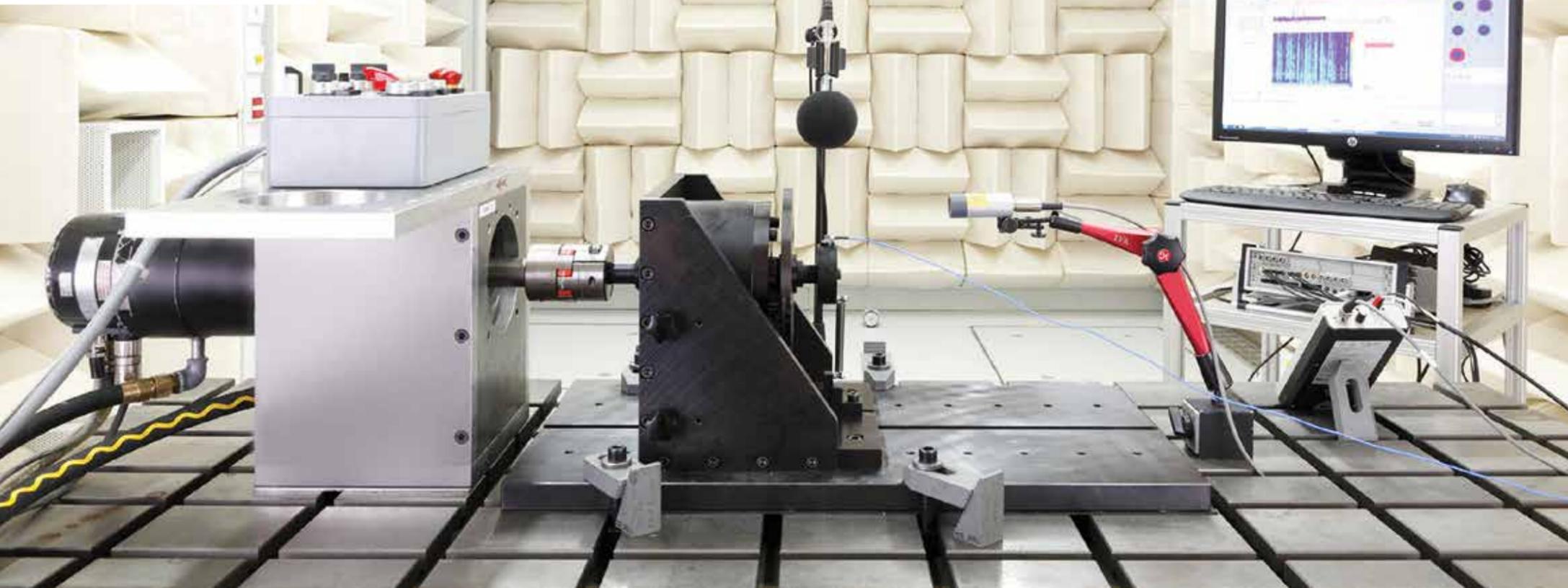
## NVH(Noise, Vibration, and Harshness)란?

우선 NVH의 N은 Noise의 약자로 듣는 이를 불쾌하게 만드는 시끄러운 소리, 즉 소음을 의미한다. Noise는 기술적으로 Air Borne Noise라고 부르는데, 주로 공기를 매질로 하여 전달되며 사람의 귀로 감지하게 된다. 소음은 음압레벨을 나타내는 dB(데시벨)로 레벨을 측정한다. 자동차 소음은 자동차의 각종 부품들로부터 발생하는 실내 소음과 풍절음과 같은 외부 소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NVH의 V는 Vibration의 약자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떨림, 즉 진동을 의미한다. Vibration은 기술적으로 Structure Borne Noise라고 부르며 물체를 매질로 하여 전달된다. 이러한 진동은 속도 및 가속도 단위로 크기가 측정된다. 자동차의 진동은 외부 진동과 내부 진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부 진동은 노면과의 마찰로 타이어와 서스펜션을 통해 차량에 전달되는 것이고 내부 진동은 엔진 및 트랜스미션의 회전에 따라 구동계를 통해 전달되는



1



## Competence Center Acoustic



3



4

1. Anechoic Chamber에서 NVH Test 중인 Pulley Bearing
2. Anechoic Chamber에서 NVH Test 중인 Audi 차량
3. 실제 차량의 구동 조건을 재현하는 Hoot Noise Test Rig
4. 다양한 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4대의 Shaker Test Rig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차량의 진동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엔진에서 바퀴까지 동력의 전달 과정 및 주행 환경 등에 의해 운전을 하는 중에 계속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NVH의 H는 Harshness의 약자로, 사전적으로는 거슬림 정도로 정의된다. Harshness는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주관적 품질(Subjective Quality)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강조되고 있는 감성 품질(Sensitive Quality)의 한 형태다.

## NVH 개선을 위한 세플러의 Competence Center Acoustic

주행 시 안정감과 편안함을 찾는 이유는 음향심리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있다. 주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은 운전자의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고 불안감을 유발시켜 운전 집중도가 떨어질 정도로 심리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래서 보통 NVH 저감 기술 정도는 자동차 메이커 및 협력사의 종합적 기술 수준으로 평가될 정도로 중요한 요인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자동차 메이커의 NVH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면서, 세플러에서는 고객의 높은 NVH 품질 개선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Competence Center Acoustic을 운영하고 있다.

## 운전자의 안정감과 편안함을 위하여

Competence Center Acoustic은 본사가 위치한 독일 Herzogenaurach와 Schweinfurt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Dr. Alfred Pecher의 지휘 아래 10여 명의 Acoustic Specialist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Competence Center Acoustic에서는 세플러의 제품을 각종 Application에 맞는 다양한 시험방법(Bearing Noise Test, Hoot Noise Test, Belt Chain Noise Test, Tensioner Noise Test, Engine Noise Test 등)을 통해 NVH 저감에 노력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4개의 무향실(Anechoic Chamber)에서 이루어지며, 세플러 제품을 장착한 완성차를 직접 시험하여 NVH 평가를 실시하기도 한다. 또한 각기 다른 NVH 분석 방법 및 Acoustic 관련 분석기기(PAK FFT Analyzer, Shaker, MGG11Gpr)를 보유하여 개발제품 뿐만 아니라 생산제품의 NVH 문제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듯 세플러의 기술을 통해 안정적인 주행을 방해하는 NVH를 최소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Competence Center Acoustic은 이외에도 세계 각 지역의 세플러 계열사와 고객사를 대상으로 소음·진동 관련 기술 지원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세플러 생산품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슈퍼우먼이 돌아왔다? 세플러 워킹맘의 하루 세플러코리아 서울사무소의 워킹맘 3인방

요즘 TV 예능에서는 아빠들의 아이 돌보기가 대세다.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건 아이들을 돌보느라 좌충우돌하는 아빠들의 모습이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육아'다. 하지만 엄마라는 이름으로 '육아'를 마주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이면 일, 육아면 육아, 두 가지 모두를 멋지게 소화해내는 그녀들의 이름은 바로 워킹맘이다.



산업기계섹터  
정혜진 대리

2003년 이나코리아로 입사하여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8년차, 6살 아이를 둔 엄마로 직장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임신 초기에 몸이 많이 힘들어 회사를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의 격려와 회사의 배려 덕분에 지금까지 회사일과 집안일을 동시에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직장과 가정, 두 가지를 모두 잘하기는 힘들지만 남편을 내편으로 만들어 직장생활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직장동료들에게는 남, 녀의 차이가 아닌 동료애를 통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 직장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저만의 비결이라 할 수 있겠네요.

**AM 6:00** 일하는 엄마들의 아침은 늘 전쟁이다. 아이의 아침밥 혹은 간식거리, 준비물, 입을 옷 같은 것까지 모두 준비해야 하고 본인인 물론 남편의 출근 준비도 동시에 챙겨야 하니 시간이 늘 빠듯하지만 하다. 그렇게 쫓기듯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워킹맘의 일상다반사다.

**AM 8:00** 모든 직장인들의 출근길이 그러하듯 복잡한 출근길을 힘겹게 견뎌내고 회사에 도착하면 이내 컴퓨터 앞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고 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먼저 처리한다. 그렇게 시작된 업무는 눈 깜박할 사이 점심시간을 향해 치달린다.

**AM 11:40** 점심시간은 전쟁 같은 아침 출근부터 정신없이 지나가는 오전 업무 이후에 비로소 가지는 휴식시간이자 재충전의 시간이다. 때로는 맛집을 찾아가 근사한 점심을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점심 식사는 가볍게 한 끼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고른다.



정보시스템팀  
김소영 사원

직장에서는 입사 13년차지만 가정에서는 이제 결혼 2년차이자 내년 3월에 첫 아이 출산을 앞둔 예비(?) 워킹맘입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도 크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 멋지게 일하고 싶은 욕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워킹맘 선배들처럼 직장과 가정 두 가지 모두 다 잘 해낼 수 있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요즘은 프로그램 개발 업무로 퇴근이 늦은 편이라 뱃속의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일도 태교라고 생각하고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끝으로 조만간 만나게 될 우리 아기에게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일하는 엄마'로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할게."



글로벌영업팀  
조경희 사원

직장생활과 가정의 일을 병행하다 보면 늘 하루가 빠듯하기만 합니다. 직장에서는 19년차 베테랑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집에서는 아내로 그리고 여덟 살 아이의 엄마로 최선을 다하며 바쁘게 살아가야 하니까요. 아이의 육아는 할머니께서 도와주셔서 그나마 도움이 되고 있지만, 아이가 아플 때에는 일하는 엄마로서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바쁜 회사 업무로 인해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뿐이지만, 대견하게도 투정 없이 잘 지켜줘서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가정과 직장에서 모두 최선을 다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늘 노력하는 멋진 워킹맘이 되고 싶어요.



**PM 2:00** 나른한 오후는 업무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이기엔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진다. 친한 동료들과 업무에 관한 수다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지만 같은 처지인 워킹맘들과의 아이 키우는 이야기가 대부분일 때가 많다.

**PM 6:00** 그날의 업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한다. 정해진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를 제시관에 데리러 갈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서둘러 업무를 마무리한다. 물론 가끔은 야근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만 가끔적이면 그날의 일은 그날에 완벽히 끝내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게 바로 일하는 워킹맘의 기본자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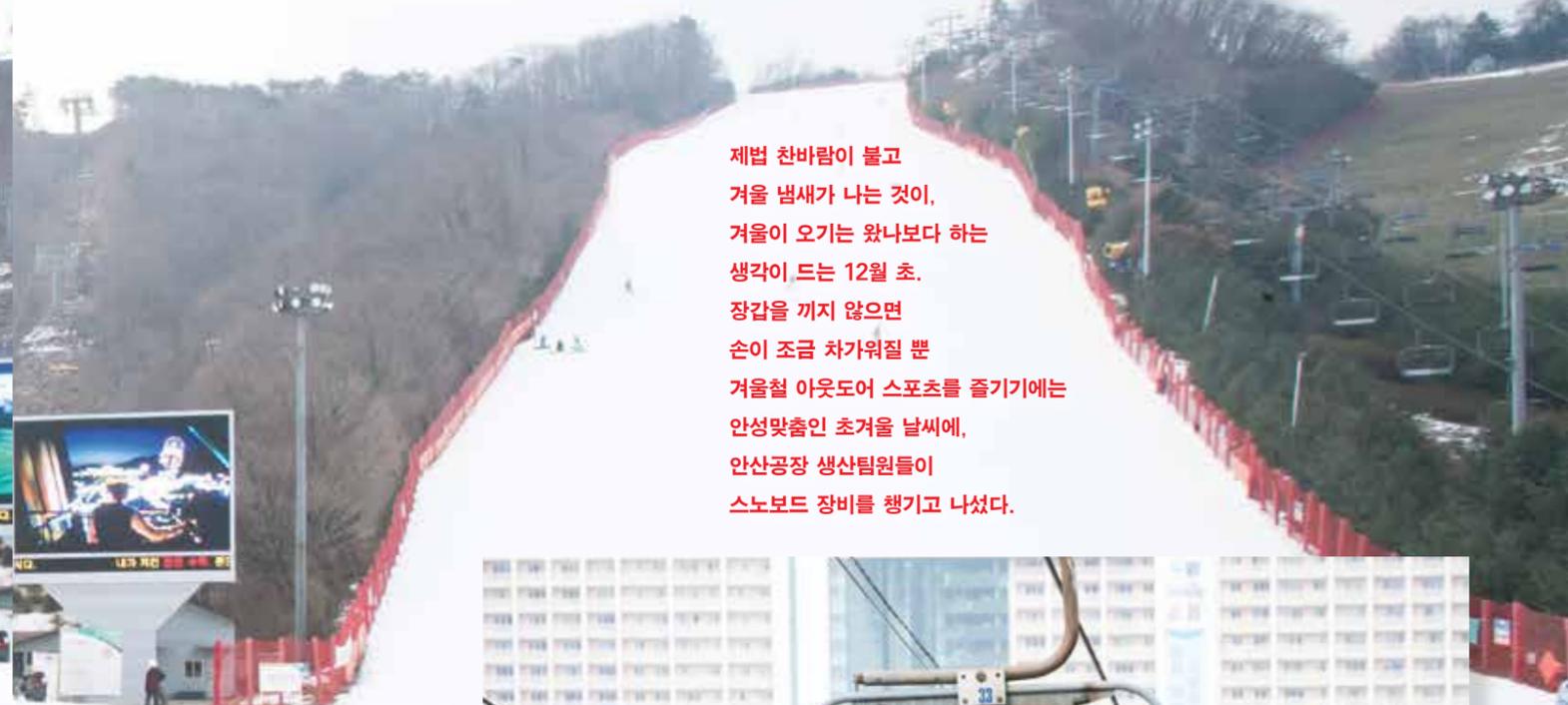
퇴근시간 이후에도 일하는 엄마들은 바쁘기만 하다. 맡겨놓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씻기고, 저녁을 먹인 후에 숙제와 준비물 등도 챙겨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공부도 가르치고, 잠이 들 때까지 동화책도 읽어준 후 아이가 잠자리에 들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 하지만 남은 집안일까지 정리하고 나면 피곤해진 몸을 추스를 사이도 없이 내일의 출근을 위해 잠자리에 들기 바쁘다. 슈퍼맨보다 바쁜 슈퍼우먼의 하루는 늘 그런 식이다.



# 안산공장 생산팀 스노보드 체험 겨울바람도 덥히는 훈훈한 단결력



윗줄 왼쪽부터 \_ 정희용 사원, 김태석 사원, 이장성 사원, 홍대곤 사원, 권오경 사원, 김태용 사원, 김민혁 사원  
아래줄 왼쪽부터 \_ 임호창 사원, 진성경 사원, 김현성 반장



제법 찬바람이 불고  
겨울 냄새가 나는 것이,  
겨울이 오기는 왔나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12월 초.  
장갑을 끼지 않으면  
손이 조금 차가워질 뿐  
겨울철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초겨울 날씨에,  
안산공장 생산팀원들이  
스노보드 장비를 챙기고 나섰다.



## 초겨울의 스키장은 우리가 접수한다!

강원도 홍천군 매봉산 자락에 위치한 대명 비발디파크. 아직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아니지만 벌써부터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에 안산공장 생산팀이 떴다. 겨울만 오면 스키와 스노보드를 자주 타러 다닌다는 팀원들도 있고 스키장 방문 자체가 처음인 팀원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모두 모여 어딘가로 놀러왔다는 사실에 잔뜩 들뜬 표정들이다. 체험 전날에도 근무를 하고 오느라 제대로 휴식할 시간도 가지지 못했지만 슬로프 가득 펼쳐진 새하얀 눈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답소를 나누는 목소리에 절로 기대감이 묻어난다.

## 함께 즐기는 시간, 추위도 잊게 만들다

스노보드 체험을 즐기기 전, 생산팀은 안전을 위해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하기로 하고 실력에 따라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로 팀을 나누었다. 스노보드를 처음 타는 초급자들은 강습을 받고, 중급자와 상급자들은 자유롭게 스노보드 타기를 즐기기로 한 것이다.



초급자 4명이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넘어지는 법이었다.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잘' 넘어지는 방법을 배운다는 말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할지도 모르지만,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스노보드를 즐기 위해 꼭 거쳐야 할 단계다. 기본기와 자세 연습을 계속 하는 것이 지루할 법도 하건만, 생산팀원들은 이런 시간을 함께하는 것마저도 소중하다는 생각에 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발의 위치와 자세를 알맞게 교정해본다.

평소 스키장을 자주 방문하기에 아예 자기 장비도 갖추고 있는 상급자 2명은 올려다보기만 해도 아찔한 경사의 슬로프를 선택했다. 아래에서 지켜보던 동료들은 바람을 가르며 멋지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두 사람의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 최강 단결력으로 항상 웃는 생산팀

눈 위에서의 속도감과 스릴을 맛보고 모인 모두의 이마에는 어느덧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쑹다"는 소리보다 "덥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이 시점에서, 김현성 반장이 잠시 쉬며 티타임을 가지자고 제안했다. 커피와 핫초코를 한 캔씩 손에 들고 수다를 떠는 생산팀의 입에서는 업무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Fit for Quality & MOVE 활동을 통한 무결점·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생산팀이 업무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단연 '불량 발생 방지'. 몇 년 전 불량률이 많이 발생하여 힘든 시기가 있었던 탓이다. 그러나 불량 발생을 최소화하고 고객 불만을 줄이기 위하여 육안 검사, 박스 라벨 미리 붙이지 않기, 개인별 라벨 출력, 박스별 라벨 출력, 바코드기 사용 등의 노력을 꾸준히 한 결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가족 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가끔은 의견 충돌로 티격태격할 때도 생기지만 항상 웃으며 같은 목표를 향해 하나 되어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 올 수 있었다며, 생산팀은 입을 모아 말했다.



###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세플러인이 되기를

근무하는 시간과 라인이 각자 달라 모두 모여 얼굴 보기가 참 힘들다는 생산팀. 라인별 MT나 분기별 회식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색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밥도 먹고 스노보드도 타니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마냥 즐거웠다. 근무를 마친 후 바로 여행지로 오느라 처음엔 힘들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함께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 동료애와 애사심이 더욱 돈독해졌다고. 스케줄 때문에 스노보드 체험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팀원들에게의 미안함과 짧게만 느껴졌던 1박2일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지만 동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해준 회사에 감사하다는 안산공장 생산팀이, 세플러코리아 전 직원의 건강하고 행복한 2014년 새해를 기원했다.

### Interview +one 안산공장 생산팀 김현성 반장



동료들과 함께 하는 야외 레포츠에 대한 낯설 반, 기대감 반으로 참여했던 1박 2일이었습니다. 충분히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 아쉽기도 하지만, 서로 서먹하게 지냈던 동료들이 함께 시원하게 스트레스를 날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모두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일하면서 바라는 소원들을 하나하나 같이 이루어나가는 201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색 불빛 가득한 동화 축제에서 맞이하는

*Happy!*

메리 크리스마스

거리 곳곳을 장식하는 트리와 반짝반짝 트리 장식들, 어딜 가나 들려오는 캐롤이 마음을 부풀게 하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보름 앞둔 12월 10일, 미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세플러 커플 두 쌍이 만났다. 추위도 잊게 만들 정도로 화기애애했던, 오색 불빛이 화려하게 수놓인 포천허브아일랜드에서의 데이트 현장을 들여다보자.

**‘세플러인’으로 맺어지는 유대관계**

오늘 포천허브아일랜드에서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 모인 네 사람은 중부직남영업팀의 이인자 사원, 중부시판영업팀의 신승희 사원, 구매팀의 문경태 사원과 중부물류센터 물류팀의 원동현 사원.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일하고 있어 원래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도 있고 업무상 협력을 했던 적이 있는 사이도 있지만, 네 사람이 함께 모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터라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는 약간의 어색함이 맴돌았다. 그러나 네 사람 특유의 친화력과 모든 이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세플러인’이라는 이름 덕분에, 이날 데이트에서는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 오색 불빛 정원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포천허브아일랜드에서는 한창 '불빛동화축제' 중. 정문에서부터 빛나는 산타 조형물이 네 명의 세플러인을 맞이하더니, 안으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오색 불빛 찬란한 조명이 온 천지에 펼쳐진다. 정원을 수놓은 색색의 조명들과 300m의 핑크빛 소원 터널, 각종 산타 조형물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듯한 풍경에 한껏 들뜬 네 사람은 추위도 잊고 아름다운 풍경을 둘러보기에 바쁘다. 트리를 장식한 전구가 열에 달아 펄펄 터지는 소리가 이따금씩 들려오는 것마저 즐겁게 느껴지는 분위기 속에서, 네 사람은 끊임없이 재잘거리고 웃으며 휴대폰 카메라에 그 풍경과 서로의 모습을 담았다.

### 적극적인 성격이 매력인 첫 번째 커플

중부직남영업팀에서 벌써 11년째 근무하고 있는 이인자 사원은 오늘 모인 네 명의 세플러인 중에서 가장 고참. 영업 및 판매, 베어링 납품을 담당하고 있는 그녀는 항상 후배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활발하고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회사 내의 각종 동호회에도 참여를 하고 있다고. 이 날도 이인자 사원은 다른 세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하얀 입김이 나는 추운 날씨에도 가장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었다. 이런 그녀에게 선망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문경태 사원. 구매팀 일반구매파트에서 치공구 및 보수자재 구매를 맡고 있는 그는 평소에도 항상 이인자 사원의 적극적인 모습을 본받고 싶었다며, 센스 있는 농담들로 아이스 브레이크에 한 몫 단단히 했다.

### 고객과의 접점에서 세플러의 성장 동력이 되는 사람들

두 번째 커플인 신승희 사원과 원동현 사원은 이번이 처음 만나는 사이다. 영업활동에 필요한 고객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신승희 사원은 새로운 사람과의 설레는 첫 만남에 처음엔 다소 수줍어하는

## 1 Couple.

문경태 사원  
구매팀

이인자 사원  
중부직남영업팀



Tip  
포천허브아일랜드

13만 평의 부지 위에 허브의 원산지인 지중해의 '생활 속 허브'를 테마로 운영되고 있는 허브 테마파크. 10가지 허브를 체험할 수 있는 허브힐링센터는 물론 야외정원, 산속정원, 허브박물관, 추억의 거리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영쁘띠발라주에서는 각종 DIY체험 역시 가능하다.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517-2

홈페이지 : www.herbisland.co.kr

문의 : 031-535-6494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원동현 사원의 진솔함에 마음을 연 듯 했다. 원동현 사원은 생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완제품, 상품, 부품 및 관련 정보의 흐름과 저장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시키는 업무를 하는 물류팀 소속. 비록 신승희 사원과 업무는 다르지만 고객과의 접점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회사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곤 연신 업무 얘기를 나눈다. 원동현 사원은 신승희 사원의 예쁜 미소에 감동하기까지 했다고 웃었다.

### 2014년, 세플러인 모두가 행복하기를 -

평소 셀카 찍기를 즐기는 여자들은 물론 사진 찍기를 귀찮아하는 남자들까지도 휴대폰을 꺼내들게 만들 정도로 아름다운 불빛 정원을 지나, 두 세플러 커플은 허브식물 박물관도 둘러보기로 했다. 향긋한 허브향이 가득한 허브식물박물관 안은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바깥의 추위와는 상이하게 무척이나 따듯했다. 봄이 온 듯 온통 고운 꽃들과 푸른 잎사귀들이 가득한 풍경에, 네 사람은 앞서 즐겼던 화려한 풍경에서와는 또 다른 즐거움으로 잠시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최근 다녀왔던 여행지를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운다.

허브식물박물관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오니,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꾸며진 산타마을이 나타났다. 두 세플러 커플은 대형 트리 앞에서 사진도 찍고, 핑크빛 소원 터널에 각자의 새해 소원을 적은 하트 카드도 달아본다. 2014년에는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싶다는 신승희 사원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공부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이인자 사원. 문경태 사원은 운동, 영어공부, 봉사활동, 야구, 독서 모두 열심히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고, 원동현 사원은 최근 승마를 배우고 있다며 2014년에는 장애물 대회에 꼭 나가고 싶다는 목표를 적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입을 모아 빈 소원은, 2014년에도 세플러 가족들이 모두 행복하고 원하는 일을 다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 두 커플의 예쁜 소원이 이루어지려는 징조인지, 까만 밤하늘 아래 대형 트리의 별장식이 연신 반짝였다.



## 2 Couple.

원동현 사원  
중부물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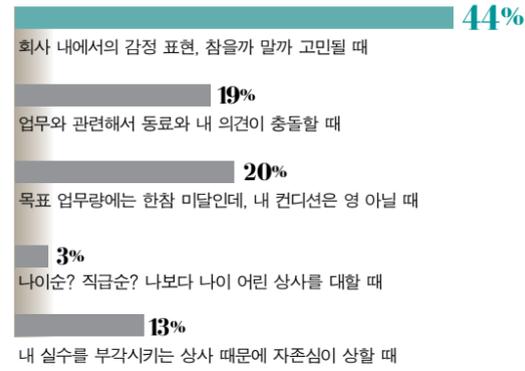
신승희 사원  
중부시판영업팀



# 세플러인들에게 묻는다!

## 나를 머리 아프게 만드는 내 삶 속 갈등 상황

### Q1 업무 중 어떤 순간에 가장 갈등을 느끼시나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이 존재와 죽음에 대한 갈등을 겪으며 외친 명대사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 역시 직장과 가정에서 다양한 갈등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혹시 당신, 매일 이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은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것이 문제로다!”

설문대상 : 세플러코리아 전 직원  
설문기간 : 2013년 12월 9일 ~ 12월 20일  
총 응답자수 : 134명



오늘도 회사에서 심한 내적 갈등에 빠진 김갈등 씨. 일처리 방안에 있어 동료와 의견 충돌이 생겼는데, 계속되는 실량이에 자기도 모르게 화가 솟구쳐 올랐기 때문이다. ‘공적인 일로 감정적인 표현을 하기도 좀 그렇고, 매번 참자니 이걸 아닌 것 같고! 아, 회사 내에서의 감정! 매번 참아야만 하는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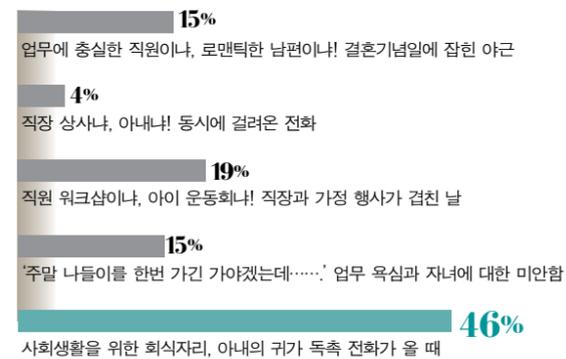
### Q2 가정 내에서 만나는 갈등 상황은 어떤 것인가요?



김갈등 씨의 갈등은 퇴근 후에도 이어진다. 아내가 한숨을 쉬고 있기에 다가갔더니, 다짜고짜 가계부를 들이민 것. “세금에, 보험금에, 경조사비에, 애들 학원비……. 적자만 겨우 면했어. 어디서 더 졸라매야 하는 거야?” 김갈등 씨도 현실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갑갑함에 한숨을 푹 내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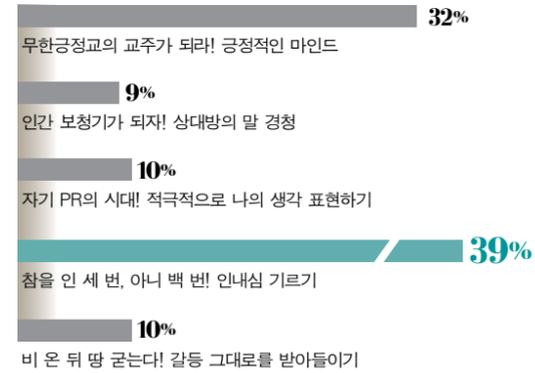
### Q3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것이 문제로다!”를 외치게 될 때는 언제인가요?



간만에 회식자리에 참석한 김갈등 씨. 원래 저녁식사와 함께 맥주 한두 잔만 하려고 했던 것이, 잔뜩 들뜬 상사 덕분에 2차에 3차에 노래방까지 와버렸다.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넘어가고, 아내가 귀가 독촉 전화를 해대는 통에 휴대폰 진동이 연신 울려대 불안해진다. ‘아내를 화나게 하기는 싫는데, 회식도 사회생활의 연장이잖아.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것이 문제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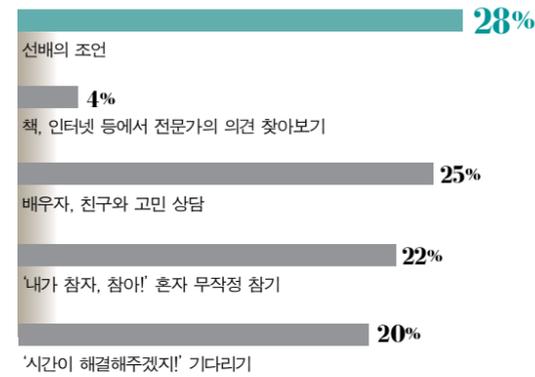


### Q4 각종 갈등 상황을 예방하는 나만의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회사와 가정에서 각종 갈등 상황을 모두 겪는 김갈등 씨는 최근 마음가짐을 바꾸기로 했다. ‘지는 게 이기는 것’,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참을 인(忍)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인내하기로 한 것이다. 일단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참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 당장의 화를 가라앉히고 한 발 양보하고,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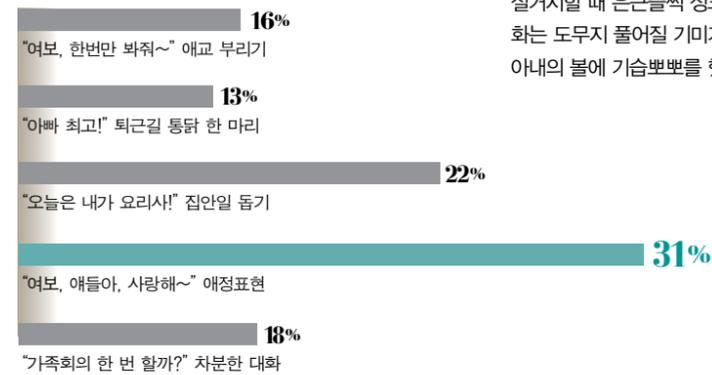
### Q5 직장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김갈등 씨가 마음가짐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직장 선배의 조언 때문이었다. 직장에서의 계속되는 갈등에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김갈등 씨가, 평소 의지하며 가깝게 지내는 선배에게 티타임을 제안한 것. 휴식시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회사의 일원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네가 한 번 더 참아봐.”라는 조언이 돌아왔다.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고 나니, 무엇이 문제일까 하며 혼자 고민하고 공공 알던 김갈등 씨의 속은 한결 후련해졌다.



### Q6 가정에서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회식으로 늦게 귀가한 탓에, 아내가 잔뜩 화가 났다. 김갈등 씨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보려 아내가 설거지할 때 은근슬쩍 싱크대에 손도 담가보고, 퇴근길에 맛있는 야식도 사들고 가보았지만 아내의 화는 도무지 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마침내 용기를 낸 김갈등 씨. 마치 연애 때로 돌아간 듯, 아내의 볼에 기슭뽀뽀를 했다. 깜짝 놀란 아내에게 건넨 말. “여보, 사랑해~ 당신뿐이야♡”



직장생활 스마트하게 도와주는 필수 어플 추천

# 스마트폰, 스마트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1위 대한민국. 한국인 10명 중 6~7명은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세는 것이 더 빠를 정도. 그런데, 당신은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시계나 '카톡'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당신의 직장생활을 스마트하게 도와줄 필수 어플을 추천한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기준)



**지하철 마법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에게, 깜빡 조느라 역을 지나친 경험은 한 번쯤 있을 터. 여기 당신이 지하철에서 맘 놓고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이 있다. 세계이동통신협회 '2012 Smarter App Challenge'에서 2등을 수상한 '지하철 마법사+'. 위치기반기술(LBS)로 사용자가 지나고 있는 현 위치와 목적지까지의 잔여시간, 역 수, 예상 도착시간을 제공한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하차역, 환승역에서의 알람 기능과 역 주변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이제 세세하게 알려주고 잠들면 깨워주는 '지하철 마법사+'로 스마트하게 출퇴근하자!

**조르테 캘린더 & 시스템다이어리**

스마트한 일정관리 어플 '조르테 캘린더 & 시스템다이어리'와 함께라면, 미팅이나 출장 등의 일정을 다이어리에 손으로 일일이 적을 필요가 없다. 할일목록 기능을 통해 일정을 빠짐없이 체크할 수 있으며, 구글 캘린더와 연동도 가능하다. 커스터마이징이 자유로워 배경화면, 글꼴, 글자색, 배경색 등을 취향대로 설정할 수 있고 다양한 위젯을 지원하므로 스마트폰은 물론 태블릿 PC에서도 화면에 꼭 맞는 다양한 스타일로 홈 화면에 추가시킬 수 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

**CamCard**

지갑이 지폐가 아니라 거래처 사람들에게서 받은 명함으로 넘쳐나고, 명함집에 더 이상 명함을 꽂을 자리가 없는가? 전 세계 5,000만 직장인들의 선택, 'CamCard'를 이용하자. 'CamCard'를 이용하여 명함 사진을 찍기만 하면 스마트하게 명함관리 끝! 자동으로 글자를 인식하여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명함 원본 사진도 깔끔하게 트리밍 시켜 보관한다. 주소록에도 자동으로 저장시키는 기능이 있고 직접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메일 보내기, 홈페이지 접속 등의 기능도 지원하고 있어 명함을 일일이 들고 다니거나 따로 정리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준다.

**킹소프트 오피스(Kingsoft Office)**

이미 퇴근했거나, 외근 중이거나, 출장 중에 문서를 당장 수정해야 할 일이 생겼다면? '킹소프트 오피스(Kingsoft Office)'로 스마트하게 확인하자. 오피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유사한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txt, dot, rtf, xls, xlsx, csv, ppt, pptx 등 다양한 양식을 지원한다. 각 파일을 스마트폰 상에서 확인하고 편집까지 할 수 있으며 편집한 파일은 다시 메일로 보내거나 저장할 수 있다. 프리버전을 사용해도 위의 기능을 전부 누릴 수 있으며, 다국어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서 관리 어플이다.

**월급계산기**

4대 보험료? 갑근세? 이거 다 빼면 내 월급과 연봉은 얼마지? 더 이상 머리 아프게 직접 계산하지 말자. 월급이나 연봉 액수만 입력하면 각종 세금과 4대 보험을 제하고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월급과 연봉, 실업급여까지 알려주는 똑똑한 어플, '월급계산기'가 있다. 근로소득 간이 세액 기준표를 적용하여 공제대상의 가족과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른 정확한 산출 기능이 탑재되어있으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위한 옵션도 선택할 수 있다. 그에 더해 다양한 최신 법률정보와 실무정보까지 제공한다. 스마트한 '월급계산기'로 똑똑하게 월급관리 하자!

**재테크의 달인**

배워도 배워도 더 공부해야 할 것이 많은 재테크 정보. 재테크 관련 서적을 찾아보고 지인에게 묻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정보를 얻느라 피곤했다면, 스마트하게 재테크를 공부할 수 있는 '재테크의 달인' 어플을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재테크의 달인'은 총 30문항의 설문으로 당신의 재테크 지식수준을 파악한 뒤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기본기부터 탄탄히 쌓아나갈 수 있도록 재무 설계, 투자, 은퇴, 세금, 상속 등의 기초지식을 알려준다. 또한 실시간으로 재테크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재테크 QnA 기능도 제공한다.

# Happy Birthday To You

## 한편의 뮤지컬과 함께하는 감동의 순간

- 전주공장 생일자를 위한 생일 선물



회사 업무에 치이고 가족들을 돌보느라 교양을 쌓는 문화 활동을 즐기기는커녕 자신의 생일도 잊어버리기 일쑤인 '아빠'들, 세플러인들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번 <세플러+원> 겨울호에서는 생일자들의 지난 생일을 축하하는 동시에 교양을 두텁게 해줄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다.



### 참여자(왼쪽부터)

- 전주공장 열처리 생산1팀 양신규 사원(10월 14일)
- 전주공장 테이퍼/휠베어링 생산2팀 안재주 사원(12월 3일)
- 전주공장 설비보전팀 김성욱 사원(12월 5일)
- 전주공장 볼베어링 생산3팀 김영률 사원(12월 1일)
- 전주공장 테이퍼/휠베어링 생산2팀 한동환 사원(11월 18일)

### 문화예술의 요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공장에서 자동차로 15분 남짓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뮤지컬이 시작되기 한 시간 전, 세플러코리아 전주공장의 다섯 생일자들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정문을 들어섰다. 가까운 곳에서 연일 교양에 깊이를 더할 작품들이 공연되고 있지만, 이 다섯 생일자들은 좀처럼 공연을 보러 올 기회가 없었다. 하루하루 업무로 인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기도 하고, 연애시절처럼 아내와 오붓이 공연을 보러 오자니 이제는 어쩔지 쑥스럽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회식자리에서나 겨우 뭉치는 남자들끼리 공연을 보러 온 것은 이번이 처음. 하지만 생일자들은 이런 기회가 어색하면서도 기대되는지 한톤 높아진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눈다.



**간만에 가정에서 벗어나 맞이하는 생일선물**

공장 내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도 있고 이름만 알고 있었거나 처음 보는 얼굴도 섞여 있건만, 다섯 생일자들은 서로의 안부와 업무의 안녕을 물으며 금방 친해졌다. 비슷한 시기에 생일을 맞다는 공통점이 있는 다섯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생일 이야기로 넘어간다. 김성욱 사원은 이벤트 열기를 좋아하는 19살 딸이 매년 풍선 이벤트, 스테이크 해주기, 친구들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 받아 모아주기 등의 깜짝 선물을 준비한다며 자랑스레 지난 생일의 에피소드를 늘어놓았지만, 사실 회사일로 바쁘고 자기보다는 가족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당연시된 '아빠'들은 자신의 생일은 특별히 챙기지도 않고 심지어 모르고 지나갈 뻔하는 일도 종종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뮤지컬 관람 생일선물은 다섯 생일자 모두에게 특별한 생일선물이 아닐 수 없었다.

**프랑스 뮤지컬의 정수, <노트르담 드 파리>**

다섯 생일자들이 고른 뮤지컬은 <노트르담 드 파리>. 빅토르 위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이 뮤지컬은 프랑스 뮤지컬의 형식을 확립한 작품으로, 아름다운 드라마와 노래가 깊은 감동을 자아낸다. 처음부터 끝까지 소름이 돋게 만드는 <노트르담 드 파리>의 무대연출은 아주 유명하다. 이날 공연에서는 곱추 종지기 콰지모도 역에 윤형렬, 아름다운 히피 에스메랄다 역에 윤공주, 그 외에 마이클리, 민영기, 조휘 등 유명 뮤지컬 배우가 열연했다. 사실 다섯 생일자들은 평소에 뮤지컬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단다. 어쩌다 기회가 생기면 한두 번 볼까 말까 할 정도라고. 그러나 이날 이들이 관람한 <노트르담 드 파리>는 이들을 뮤지컬의 세계로 이끌기에 충분했다.

공연이 끝난 후 뮤지컬의 매력과 감동에 흠뻑 빠진 다섯 생일자들. 예술적 감성으로 충만해진 가슴을 안고 방금 본 뮤지컬 이야기를 나눈다. 평소 자신의 생일은 잘 챙기지 못하다가 이번에 뮤지컬과 함께하는 감동의 생일선물을 받은 이들의 생일을 하느라 축하하는 것인지, 가로등 밝혀진 모약당 앞을 나란히 걸어가는 다섯 남자들 머리 위로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렸다.

**Interview +one**  
전주공장 테이퍼/휠베어링 생산2팀 **한동환** 사원



평소에 제 생일 같은 건 잘 안챙기는데 올해는 그나마 아내와 3살 아들이 축하 노래를 불러주어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다 오늘 이렇게 감동적인 뮤지컬 관람까지 하게 되니 기쁩니다.

아들이 태어나기 전엔 아내와 콘서트를 보러 다니곤 했는데, 요즘은 거의 못갔거든요. 직장 동료들끼리 공연을 보러 온 것은 처음이라 좀 어색했는데, 관람 뒤에는 아주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2014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생일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배려의 마음으로 맞이하는 2014년!**

업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되돌아보면 언젠가부터 우리는 바쁘게 앞만 보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 점점 주변 상황에 무감각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함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자신을 소외시키고 주변에 해를 끼칠 수도 있겠지요.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우리를 위해서는 보다 상대방의 중심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배려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미 상대방을 초대한 배려하며 생활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 배려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혼자만의 배려, 상대방에게는 영혼 없는 배려는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심 어린 배려를 할 수 있을까요?

진심어린 배려는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는 나의 욕심, 생각, 입장만을 고수하지 않고 상대방,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자세에서 비롯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나의 입장만을 고수하지 않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우리 팀의, 공장의, 회사 전체의 목표와 입장을 생각하며 서로에게 베푸는 배려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나보다 우리, 우리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보다 나은 나, 우리, 그리고 전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겨울바다의 감성과 낭만 있는 자리 카라반의 추억

창원공장 3PU 단조팀 장영진 사원 가족



겨울 캠핑에는 특별함이 있다. 추운 날씨가 야외활동에 제약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만큼 호젓한 곳을 지낸다. 특히 그 장소가 찬바람이 매서운 겨울 바닷가라면 더욱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자연과 마주하며 느끼는 특별한 감성이 한층 더 빛을 발하는 계절과 장소. 바로 그곳으로 장영진 사원 가족이 캠핑을 떠났다.

## 캠핑의 고수가 처음 찾은 안락한 캠핑, 카라반

“양보다 질, 질보다 멋, 멋보다 감성이라는 말을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네요. 감성과 멋을 느끼면서 카라반을 배경으로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코펠에 라면도 끓여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아이들도 설렘과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카라반에서의 캠핑은 처음이라고 했다. 총각시절부터 캠핑을 다녔던 장영진 사원은 그 경력만으로도 이미 캠핑의 고수. 부인과의 연애시절에도 캠핑을 다녔고, 아이들과도 자주 캠핑을 다녔다. 여는 캠핑 고수들이 그러하듯 캠핑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문명의 이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캠핑장을 일부러 찾아가기도 했다. 이런 장영진 가족에게 카라반에서의 캠핑은 낯선 경험으로 다가왔다. 자연과 부딪치면서 느끼는 캠핑의 재미가 아닌 오롯이 자연을 감상하기 위한 캠핑을 해보려는 생각으로 왔다고 한다.

## 겨울바다와 만나는 특별한 방법

장영진 가족이 찾은 오빌리지 아메리칸 카라반 캠핑장은 청정해역으로 알려진 거제도 장목면 외포리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을 준다. 널찍이 자리한 카라반 캠핑장은 카라반 간의 간격이 넓고 다른 카라반 캠핑장을 보다 카라반의 사이즈도 크며 카라반에 인접하게 설치한 테크 시설을 베란다처럼 이용할 수 있어 보다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안락한 카라반에서 안방처럼 퐁퐁퐁하는 것도 카라반 캠핑의 재미이다.



“오늘만큼은 공주님 막내딸도 엄마를 도울게요!”



이곳에 여장을 푼 장영진 사원의 가족은 이내 주변을 살펴보기 바쁘다. 언덕에 위치한 카라반에서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면 조그만 바닷가와 만날 수 있었는데, 장영진 씨는 미리 준비한 낚싯대를 챙겨들고 가족과 함께 바다와 마주했다. 조그만 몽돌로 이뤄진 바닷가에서 겨울 바다와 마주선 가족은 낚싯대를 드리워보기도 하고 파도치는 해변을 따라 요리조리 걸어보기도 하면서 애뜻한 한때를 보냈다. 겨울바람이 사뭇 매서웠지만 이들 가족 앞에서는 별로 힘을 쓰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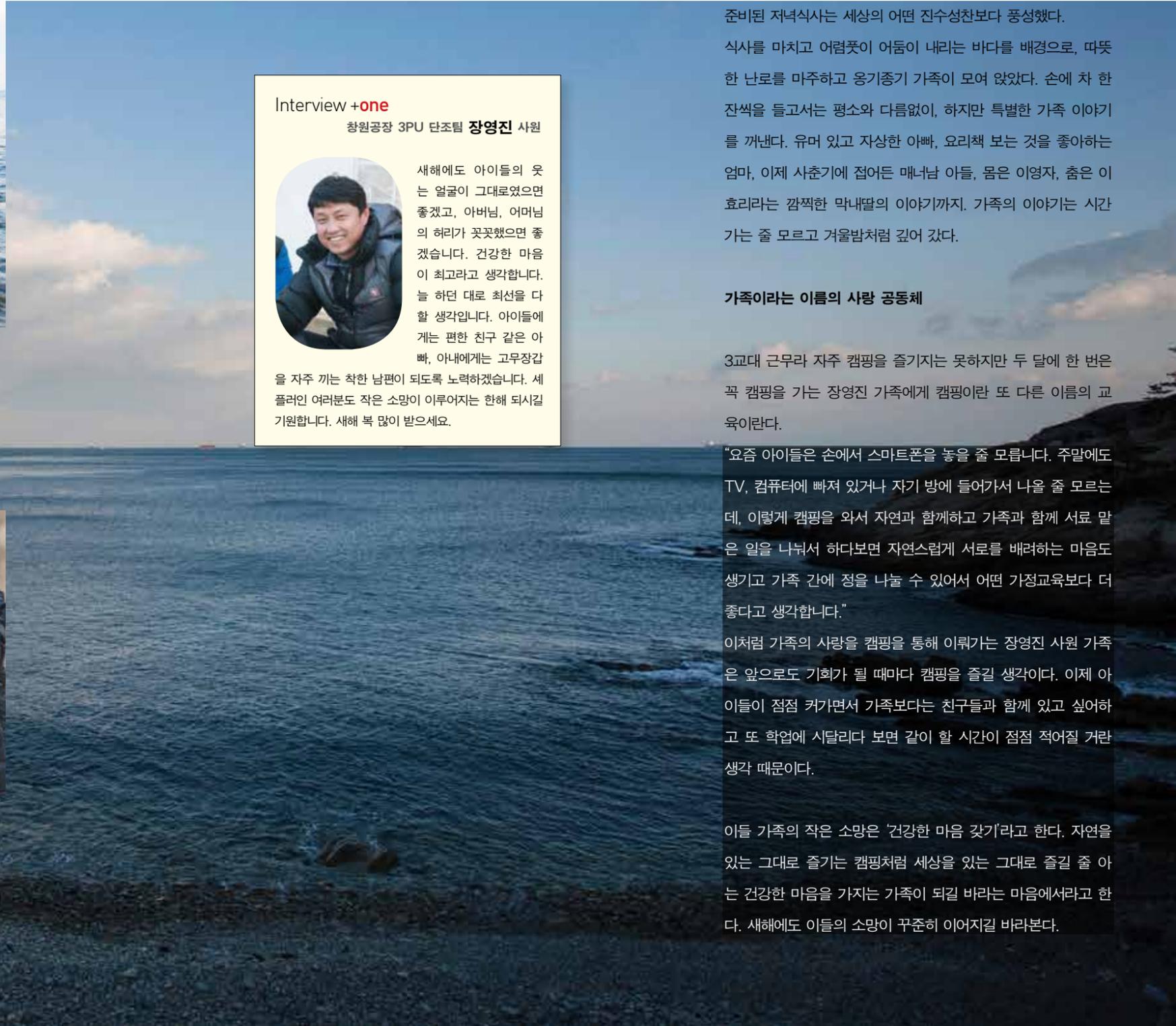
**가족과 함께 정을 쌓아가던 캠핑의 추억**

이미 연애시절부터 캠핑을 즐겼던 장영진 사원 부부는 결혼한 이후에도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즐겼단다. “나와 취미를 같이한 아내와 아들, 딸과 함께 텐트를 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도움을 나누고 한 공간에서 부대끼면서 자고, 서로를 더 많이 아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게 가족 캠핑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 말하는 장영진 사원 가족은 겨울 캠핑도 즐긴다. 깨끗하고 하얀 눈 속에서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서 더욱 매력적이라 겨울 캠핑을 간다고 한다. 특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면 손수 휴대용 배터리를 이용해 전등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도구도 직접 만들어 사용하면서 더욱 재미있는 캠핑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이 가족이야말로 진정 캠핑의 맛을 즐길 줄 아는 캠핑 고수 가족임에 틀림없다.



연애시절부터 캠핑을 함께 다녔다는 장영진 사원 부부.



**Interview +one**

창원공장 3PU 단조팀 **장영진** 사원



새해에도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그대로였으면 좋겠고, 아버님, 어머님의 허리가 꼳꼳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마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늘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편한 친구 같은 아빠, 아내에게는 고무장갑

을 자주 끼는 착한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플러인 여러분도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캠핑의 낭만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가족**

찬 겨울 바닷바람에 어느새 발그레해진 불이 시러울 무렵. 가족은 다시 카라반으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준비했다. 아빠와 아들은 함께 장작불을 피우며 바비큐를 준비하고 엄마와 딸은 채소를 씻고, 준비한 반찬을 담아내며 저녁 상차림을 한다. 그렇게 준비된 저녁식사는 세상의 어떤 진수성찬보다 풍성했다.

식사를 마치고 어렵듯이 어둠이 내리는 바다를 배경으로, 따뜻한 난로를 마주하고 옹기종기 가족이 모여 앉았다. 손에 차 한 잔씩을 들고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지만 특별한 가족 이야기를 꺼낸다. 유머 있고 자상한 아빠, 요리책 보는 것을 좋아하는 엄마,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맏남 아들, 몸은 이영자, 춤은 이효리라는 깜찍한 막내딸의 이야기까지. 가족의 이야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울밤처럼 깊어 갔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랑 공동체**

3교대 근무라 자주 캠핑을 즐기지는 못하지만 두 달에 한 번은 꼭 캠핑을 가는 장영진 가족에게 캠핑이란 또 다른 이름의 교육이란단다.

“요즘 아이들은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을 줄 모릅니다. 주말에도 TV, 컴퓨터에 빠져 있거나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올 줄 모르는데, 이렇게 캠핑을 와서 자연과 함께하고 가족과 함께 서로 맡은 일을 나눠서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가족 간에 정을 나눌 수 있어서 어떤 가정교육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가족의 사랑을 캠핑을 통해 이뤄가는 장영진 사원 가족은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캠핑을 즐길 생각이다. 이제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또 학업에 시달리다 보면 같이 할 시간이 점점 적어질 거란 생각 때문이다.

이들 가족의 작은 소망은 ‘건강한 마음 갖기’라고 한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캠핑처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즐길 줄 아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는 가족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한다. 새해에도 이들의 소망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라본다.

# 둘둘 말기만 하면 끝? 센스 있게 목도리 매는 법

목은 신체기관 중 체온조절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철 목도리를 둘러서 목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신체 전반의 보온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목도리, 좀 더 센스 있게 매 수는 없을까? 여기 당신의 따뜻한 겨울나기와 센스 있는 겨울 남자로의 환골탈태를 도와줄 목도리 매는 방법을 소개한다.

## 롤 노트



가장 일반적인 매듭법으로, 고급스러우면서도 단정하여 특히 정장에 잘 어울린다. 가장 손쉽게 매 수 있어 일반적으로 두루 쓰이는 방법이다. 옷차림에 따라 목도리를 재킷 안에 집어넣으면 좀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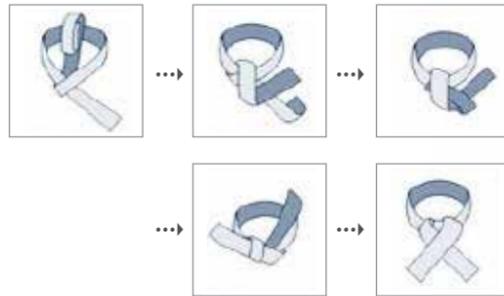


1. 목에 목도리를 두른 후 앞쪽에서 한쪽 끝으로 다른 한쪽을 감아 앞으로 늘어뜨린다.
2. 앞쪽 자락이 뒤쪽 자락을 감출 수 있도록 정리한다.

## 클럽 노트



영국이나 미국의 전통학교에서 볼 수 있는 줄무늬가 들어간 니트, 울 소재의 목도리 스타일을 '스쿨 머플러'라 한다. 클럽 노트는 스쿨 머플러를 묶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청바지 같은 캐주얼한 옷차림에 발랄함을 더한다.



1. 한쪽은 짧게, 다른 한쪽은 길게 목에 건다.
2. 두 자락을 교차시켜 긴 쪽을 원 안으로 넣고 짧은 쪽을 감는다.
3. 감을 때 생긴 공간으로 짧은 자락을 넣어 고리를 만든다.
4. 가운데 형성된 고리 사이로 두 자락을 교차시켜 넣어 당긴다.
5. 느슨하게 두르고 매듭은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



## 프렌치 노트



자칫 무겁고 고루해 보일 수 있는 겨울철 패션에 깔끔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매듭법이다. 목을 따뜻하게 하기 보다는 멋을 위한 기능이 더 큰 매듭법이지만 시선을 위쪽으로 끌어 패셔너블하면서도 날렵하게 보이는 효과를 주므로 애용된다.



1. 한쪽은 짧게, 다른 한쪽은 길게 목에 걸쳐 교차시킨다.
2. 긴 쪽을 원 안으로 넣는다.
3. 다른 한 쪽으로 빠져나온 목도리 부분을 휘감아 두 자락 사이에 생긴 공간으로 넣어 당긴다.

## 하이 랩



목을 감싸주기 때문에 목도리의 본래 역할인 보온에도 충실한 하이 랩 방식. 심플하면서도 클래식한 멋이 있어 정장풍 옷차림에 목도리를 매 때 유용하며, 유럽의 스트리트 패션에서도 많이 보이는 매듭법이다.



1. 한쪽은 짧게, 다른 한쪽은 길게 목에 걸쳐 교차시킨다.
2. 긴 쪽으로 목을 한번 감아 원을 만들고, 원과 원 사이에 생긴 공간으로 감은 자락을 넣어 잡아당긴다.
3. 감지 않은 쪽을 원 안으로 공간을 두어 넣는다.
4. 목 앞에서 크게 크로스한 형태가 되면 완성.

## 배용준 스타일



한류드라마 <겨울연가>를 통해 영원한 겨울 남자로 거듭난 배용준이 애용했던 매듭법이다. <겨울연가>에서 배용준이 열연했던 캐릭터 '이민형'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지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1. 한쪽은 짧게, 다른 한쪽은 길게 목에 건다.
2. 긴 쪽으로 목을 한번 감아 원을 만들고, 다른 쪽을 공간을 두고 그 안에 넣는다.
3. 공간이 생긴 곳으로 목을 감은 쪽을 교차하듯 넣어 당긴다.



### Tip 목도리보다 조금 더 간편한 넥워머

당신이 목도리를 대충 둘둘 감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도 바쁜 아침 시간 느긋하게 스타일링할 시간이 없어서일 터. 방한과 스타일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목도리의 양 끝이 붙어있는 형태의 넥워머다. 자연스럽게 목에 걸치기만 해도 따뜻함과 멋스러움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 백번 듣는 말 보다 한번 타보는 말이 낫다

창원공장 1PU 볼베어링 생산1팀  
안상철 사원과 윤원석 사원의  
승마 체험기

2014년 갑오년은 말의 해이다. 말은 옛날부터 인간과 친숙한 동물로 자신의 등에 인간을 태우고 달리는 것을 속명으로 받아들이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하지만 요즘의 우리들은 말과 그리 친숙하지 않은 느낌이다. 말을 달리며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기마민족의 기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 얘기인 듯싶다.

## 귀족의 스포츠에 도전하다

승마는 익히 알고는 있지만 쉽게 접해보지 못하는 스포츠이다. 많은 승마인들이 승마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말 자체가 워낙 값비싼 유지비가 드는 동물이거나와 전문적인 인원과 시설의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기에 좀처럼 쉽게 즐길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승마는 '귀족의 스포츠'로 알려져 있다.

조랑말을 타고 고삐는 조련사에게 맡긴 채 정해진 코스를 걷는 관광지에서의 말타기 체험과는 차원이 다른, 정식 승마 배우기에 도전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였다. 이런 낯선 도전에 과감히 온몸을 던지기(?)로 마음먹은 이들이 바로 창원공장 볼베어링 생산1팀의 안상철 사원과 윤석원 사원이다.

## 살아 숨쉬는 탈것(?)과의 낯선 조우

창원공장장에서 멀지 않은 창원 의창구 북면에 위치한 <창원승마클럽>. 사실 이들이 이번 승마를 체험하기로 한 승마장은 일반인들을 위한 승마장이 아닌 승마 선수들을 위한 장소이다. 전문가를 위한 장소인 만큼 시설의 규모도 규모이거나와 말의 종류부터가 사뭇 범상치 않았고 건강한 품새를 보였다.

이곳에서 안상철 사원과 윤석원 사원이 처음으로 승마를 배우기 위해 만나게 된 말은 초보자를 위해 준비된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말인 '한라(6살)'와 '다니엘(8살)'이었다. 초보자용 말이라고는 하나 체격이 당당하고 걸음걸이는 우아했다. 이들과 호흡을 함께 하게 될 안상철 사원과 윤석원 사원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다 못해 얼어있다.



창원공장 1PU 볼베어링 생산1팀 윤원석 사원

동물을 이용한 여러 탈것 중에서 가장 속도감을 느낄 수 있고 직접 동물과 호흡해야 하는 운동이라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경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승마, 말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는 몸짓

승마를 배우기 위한 기본 보호구를 착용한 뒤 안상철 사원부터 말에 올랐다. 잘 조련된 말임을 입증이라도 하듯 백마 '다니엘'은 안상철 사원에게 자신의 등을 내주었다. 승마를 배우는 일련의 과정은 모두 말과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으로 달리는 주체인 말에 사람이 호흡을 맞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선된다. 말이 달리는 리듬을 몸으로 익히게 되면, 비로소 자신이 달리고 싶은 속도와 방향을 말에게 전달하는 법을 배운다. 말을 지배하고 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 달리는 말을 이해하고 말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는 법이 바로 승마인 것이다.

## 완벽한 호흡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말달리다

안상철 사원에 이어 윤원석 사원도 흑마 '한라'의 등 위에 올랐다. '한라'는 '다니엘'보다 조금 어린 나이 때문인지 약간은 거친 발걸음을 내딛었다. 하지만 윤원석 사원도 어렵지 않게 이내 호흡을 맞춘다.

사실 윤원석 사원과 안상철 사원도 회사 내에서 서로 호흡을 맞춰나가는 사이이다. 같은 볼베어링 생산1팀 소속으로 윤원석 사원은 연식라인에서, 안상철 사원은 조립라인에서 일하다 보니 불량품 없는 완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호흡을 잘 맞춰나가야 했다. 결국 업무도 승마도 서로 간의 호흡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된다.

처음부터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호흡을 맞춰왔기에 마지막까지 충분히 기분 좋은 속도로 달릴 수 있었던 이번 승마 체험. 지금 이들의 모습처럼 힘차게 달리는 갑오년 말의 해가 되길 기원해 본다.



창원공장 1PU 볼베어링 생산1팀 안상철 사원

제주도에서 조랑말을 타 본 경험은 있는데, 이렇게 승마를 제대로 배워 본적은 없었습니다. 승마를 하면서 안 쓰던 근육을 써서 그런지 허리와 장단지가 조금 아픈 듯하지만, 회사에서의 닫힌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상쾌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부부관계와 직장생활을  
동시에 행복하게 하는 방법

*아내와 함께 하는  
취미생활 만들기*



*Happy*

볼링, 독서, 음악 감상 등……. 사람들은 각자 일상에 활력과 재미를 부여할 취미생활을 즐기며 산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같은 취미생활을 즐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부부가 공통된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단순히 같은 것을 하기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남편들이 많기 때문. 이번 <남편의 자격>은, 그런 막막한 남편들을 위해 준비했다!

**‘세 박자’ 맞추기의 중요성**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노는 것과 쉬는 것 그리고 일하는 것의 균형(Balance)을 잘 맞출 때 가장 일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게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먼저 노는 것과 쉬는 것, 그리고 일하는 것의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부부가 함께 취미생활을 시작해야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된다. 그러면 함께 즐거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은 아직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취미생활을 할 때 즐겁기보다는 짜증이 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데 ‘노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사람들은 종종 노는 것을 곧 쉬는 것으로, 또는 쉬는 것을 곧 노는 것으로 오해한다. 노는 것은 정신적으로는 활력을 주지만 몸에는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피로를 증가시킨다.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동료들과 가볍게 술을 한잔하면 스트레스는 풀릴지언정 수면시간은 부족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행을 떠나는 ‘노는 시간’ 뒤에는 충분히 휴식하고 한가하게 보낼 수 있는 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만약 4일간 휴가를 내었다면 3일간 여행을 하고 하루는 충분히 쉬 뒤에 출근을 하는 것이 좋고, 여행 중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듯 일하는 시간 후 노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각각 제대로 확보해야 ‘세 박자’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첫 번째 관문, 스트레스 극복하기**

사람들은 각자 취향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공통된 취미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취미생활을 공유하려면,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를 위해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도 배우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물론 처음에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이를 극복해내면 서로가 즐거워질 수 있다. 만약 아내가 좋아하는 소셜 댄스를 같이 배우고 있는 남편이 있다면, 소셜 댄스를 어느 정도 추게 될 때까지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이때 아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시간도 가져야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부부관계에서 억울함도 느끼지 않게 된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낚시를 함께 하기로 했다면, 남편은 낚시에서 돌아온 뒤에 아내가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집안일과 육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도 부부가 즐겁게 낚시를 즐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With*

**아내와의 행복한 취미생활을 만드는 방법**

- ① 일하고, 놀고, 쉬는 시간의 균형을 맞춰라
- ② 한발씩 양보해서 스트레스를 줄여라
- ③ 함께 한다는 즐거움 그 자체를 누려라



**음주와 경쟁을 주의하라**

취미생활을 공유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음주다. 음주는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부주의하게 음주를 할 경우엔 가장 큰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 술자리에서는 긴장이 풀려 편안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지만, 술자리에서만 마음을 나누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술자리가 아닐 때는 마음을 나누기가 어색해지기 때문이다. 또 취미활동이 주는 즐거움보다 음주가 주는 즐거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면 취미생활 끝자락엔 늘 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알코올이 뇌의 절제 기능을 마비시켜 속상했던 감정을 원초적으로 드러내도록 하므로,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관계 개선을 위해 취미생활을 시작한 경우에는 음주 후 큰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취미생활을 즐길 때의 음주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취미생활을 즐기다보면 더 잘하고 싶어지는 욕심을 갖게 되기도 한다. 어느 정도 실력이 늘면 내기를 하면서 경쟁을 하기도 하는데, 내기에서 지면 본인 스스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잘하지 못하는 배우자가 답답해지고 짜증이 나게 된다. 따라서 경쟁을 통해 스킬을 맛보는 것보다는 취미생활을 부부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더 좋다.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것은 배우자와 삶을 공유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라는 나무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과도 같다. 아내와 함께 하는 취미생활을 통해 그냥 평범한, 그저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니라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결혼생활을 하길 바란다.

카드업계 제휴카드 대거 정리

# 2013년 한해 사라진 제휴카드만 1,000종 이상?!



**제휴카드 대거 정리의 이유, 카드사의 수익 감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1~3분기 신용카드사들의 순이익은 1조 45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가량 감소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금리 인하, 경기 침체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삼성카드의 경우 올 1~9월간 순이익이 전년대비 70.8%나 급감했다. 현대카드 역시 22.5%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외 신한카드와 롯데카드의 순이익은 각각 8.6%, 4.5% 하락하는 등 카드사들의 수익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카드사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제휴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2013년 한해 카드사들이 발급을 종료한 제휴카드 상품만 1,000종이 넘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익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실질적 고객이 없는 상품을 계속 유지해 관리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며 카드 축소 배경을 설명했다.

**카드사별 제휴카드 '정리해고' 현황**



신한카드는 2013년 상반기 제휴업체 사정을 이유로 아발론스카이패스/알라딘/영서방송/삼성자동차 등에서 제공하던 카드를 중단했다. 이어 지난 9월에도 4050스카이패스/LG U+Class/LIG손해보험 카드 등 총 26개 제휴카드의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삼성카드는 신라면세점/올리브백화점/메가박스/테크노마트 등 10여 개가 넘는 기업과 제휴를 맺고 발급했던 28개의 제휴카드를 정리했다. 이들 카드는 더 이상 교체, 추가, 갱신, 발급이 되지 않는다.

KB국민카드 역시 28개 제휴카드의 발급을 종료했다. 롯데카드와 우리카드는 각각 7개, 2개로 제휴카드를 계속해서 축소해 나가고 있다. 현대카드는 지난 7월 부가서비스 단순화를 골자로 한 '챗터2' 시리즈를 출시하는 대신 알파벳카드와 제휴카드 등 총 67개의 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기업과의 제휴 협약으로 비교적 많은 제휴카드를 발급해 오던 씨티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등도 제휴카드를 대거 정리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서울산업대/연세대/쉴즈/한국지역난방공사/힐라/레포트 카드 등 2013년 한해 동안 발급을 중단한 제휴카드만 595개에 이른다. 씨티은행 역시 64개의 제휴카드를 정리했다.

카드업계가 수익 악화로 초강도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2013년 한해 국내 카드사를 통틀어 사라진 제휴카드가 1,000종이 넘는다. 경기 침체로 카드사의 순이익이 감소하면서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휴카드 '정리해고'에 들어간 것. 카드사별 사라진 제휴카드와 남아있는 제휴카드를 정리해본다.



**부가서비스 역시 대폭 줄어**



기존에 제공하던 부가서비스도 대폭 줄어들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부가서비스가 축소된 카드 수만 7,384개에 이른다.

KB국민카드는 '잇(IT)' 계열 체크카드의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잇카드 상품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카드사 입장에서 상품유지가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카드는 가맹점의 포인트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익 개선에 나섰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 보너스클럽 가맹점인 이마트에서는 더 이상 포인트 적립을 할 수 없다. 단지 포인트 사용만 가능한 가맹점으로 변경됐다. 현대카드도 자사의 M포인트 서비스 기준을 변경했다. 일부 업종의 M포인트 적립률을 당월 실적에 따라 적립되도록 하는 등 포인트 적립을 차등화한 것이다. 항공 마일리지 적립 기준도 낮췄다. 각각 1500원당 1.5마일리지, 2마일리지였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마일리지, 1.5마일리지로 줄였다.

**제휴카드 및 부가서비스 축소, 이제 꼼꼼히 '들자'**



문제는 카드사들이 이 같은 제휴카드나 부가서비스 축소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공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런저런 혜택 제공을 앞세워 고객을 끌어모은 뒤 손실이 나면 슬그머니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부가혜택 고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카드사들의 '꼼수 영업'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우선 카드사의 부가혜택 의무 유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3~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부가혜택 축소 6개월 전부터 카드사들이 매월 고객에게 변경 내용을 자세히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부가혜택 축소가 예정된 카드의 경우 신규 회원 모집 시 해당 사실을 분명히 알리도록 했다. 이어 서비스가 변경될 경우 세부 내용뿐 아니라 변경 사유도 통보해야 하며 카드 회원이 변경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 전후로 구분해 부가 혜택 내용을 비교 공지하도록 했다.

Tip.

## 다른 신용카드 선택 시 참고하세요!

각 카드사의 Best Selling 카드 체크 - 갈수록 혜택 주는데... 알짜배기 카드를 골라라

부가서비스 및 할인 등 각종 혜택은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제휴카드가 정리되거나 부가서비스가 줄어 카드를 바꾸려 한다면, 각 카드사의 Best Selling 카드를 체크해보자. 카드가 많이 팔렸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의 양과 질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삼성카드, '삼성카드 3'



2013년 한 해 300만여 장이 팔린 '삼성카드 3'은 학원, 병원, 여행 등 생활 속 다양한 부분의 가맹점에서 0.5~5%의 높은 포인트 적립률을 자랑한다. 또한 CGV에서 동반 1인 주중 무료 및 주말 50% 할인, 에버랜드/이월드/통도환타지아에서 자유이용권 구입 시 동반 1인 무료입장, 캐리비안베이/아쿠아환타지아에서 입장권 구입 시 동반 1인 60% 할인 등의 '동반자 혜택'이 제공된다.

### 우리카드, '다모아카드'



2013년 7월 중순 출시된 '다모아카드'는 출시 후 약 3개월 만에 30만 장이 넘게 팔리고, 12월 30일 기준 50만 장을 돌파했다. '다모아카드' 한 장이면 모아포인트, CJONE, OK캐쉬백, Oh!POINT 등 대한민국 대표 8개 멤버십의 적립 및 통합 사용이 가능하다. 모든 영화관에서 3,000원 할인, 주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50% 현장 할인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 신한카드, '신한카드 Cube'



신한카드의 2013년 인기상품은 34만여 장이 팔린 '신한카드 Cube'.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THE PROUD 2013 주목받는 신상품』 부문 신용카드 단독 수상 상품으로, 통신, 음식/주점, 할인점, 주유 등의 영역 19개 서비스 중에서 직접 3가지를 선택하여 5%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전월 이용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내 모든 업종에서 2만 원 이상 이용 시 한 달에 5번까지 1,000원 미만의 잔돈을 할인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 롯데카드, '롯데 VEEX 카드'



2013년 롯데카드에서 가장 많이 팔린 카드는 총 30만 장이 발급된 '롯데 VEEX 카드'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면세점, 롯데리아 등 39개 제휴사 이용 시 0.5~3%의 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되는 것은 물론,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건강 결제금액에 따라 최대 2%의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전월 이용금액이 30만 원만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적립한도도 없다.

### 하나카드, 'CLUB SK'



하나SK카드에서는 'CLUB SK'가 24만 장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 SK텔레콤 이용자라면 통신요금을 최고 15,000원까지 할인해주며, 카드 사용금액에 관계없이 멜론, SK브로드밴드, 워커히 호텔 등 SK 관계사 이용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주유비도 리터당 최대 150원을 할인해주고, 교통, 커피, 외식, 영화 등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포함한 생활비 부분의 할인율이 높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 To Communicate

이 한장의 그림

- 우울한 마음에 활력을 주는 그림



장성철 작 / 종이에 아크릴릭 / 2007

화려하게 피어나는 꽃봉오리처럼 붉은 터치들은 즉흥적이고 강렬한 느낌을 전달한다. 가공되지 않은 야생적인 자연을 느끼게 하는 이 그림은 감정을 솔직하고 꾸밈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용기를 가져다준다.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 타오르는 붉은색이 활력을 가져다주고 그와 보색대비를 이루는 초록색과 파란색의 차가운 느낌은 시각적인 즐거움을 증대시킨다.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우울할 때 열정을 가져다주는 그림이다.

색채마음연구소(www.multitherapy.com)

사람과 사람 사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

# 세플러코리아의 연말 사회공헌 총정리

##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



연탄 배달을 하기 위해 모인 임직원들과 가족들,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

### 외로운 이웃에 따뜻함을 전하다

11월 9일, 상계3·4동주민센터 앞이 북적였다. 총 37명의 우리 회사 임직원들과 직원 가족,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이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배달하러 모인 것이다. 추운 겨울을 아무도 외롭고 춥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모인 이들을 위해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서도 도움이 손길을 주었다. 앞치마와 비닐장갑, 목장갑, 토시를 착용한 봉사자들은 연탄을 세는 역할, 연탄을 떼어 건네주는 역할, 연탄을 옮겨 쌓는 역할을 할 세 개의 팀으로 나눈 후 본격적으로 연탄을 옮기러 향했다.

### 땀방울과 연탄 검정에 물어난 나눔 정신

이날 봉사자들이 옮길 연탄은 2,000장으로, 총 10가구의 저소득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었다. 연탄은 한 장에 3.6kg. 한 번에 두 장씩 옮기는 연탄이 무겁게 느껴질 법도 한데, 두 팔을 쭉 펴서 연탄을 들고, 나르고, 지그재그로 서서 전달 릴레이를 하는 봉사자들은 연신 하하호호다. 아빠를 따라 봉사활동을 하러 나온 초등학생 아이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연탄을 들고 힘든 기색 없이 뛰어다녔다. 이마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맺혔고 손과 볼은 온통 연탄 검정 범벅이 되었지만 아무도 불평하는 이가 없었다.



### "탄~탄탄탄탄~연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처럼 작게나마 한 몸 뜨겁게 희생하여 어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운 세플러코리아 직원들과 직원 가족,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 "탄~탄탄탄탄~연탄!" 구호를 마지막으로 길거리에 떨어진 연탄 부스러기와 쓰레기를 치우는 등 뒷정리까지 완벽히 한 그들의 뒷모습에서 뿌듯함이 묻어났다.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 나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연말연시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직도 참 많다는 사실에 마음이 찡해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 정과 관심을 나누어 따뜻한 연말을 만든 세플러코리아와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의 사회공헌 활동들을 총정리해 본다.



## 셋마루공부방 아이들과 함께하는 요리체험



### 셋마루공부방 아이들과 색다른 요리체험

셋마루공부방은 프란치스코 수녀회와 성동구청의 지원을 받아 금호, 행당, 하왕십리 지역 저소득층 가정, 편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다. 현재 셋마루공부방에서는 32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매일 하고 후 이곳으로 모여 학습과 문화 활동 등의 특별활동을 하고 저녁식사까지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이곳 아이들에게 색다른 요리체험을 선사하기 위해, 재경팀원 8명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섰다.



아날 요리체험은 요리를 통해 교감하는 색다른 오감체험이었다.

### 오감체험으로 서로서로 친해져요

아이들과 재경팀원들 및 그 자녀들은 요리에 앞서 조를 나누었다.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와 짝이 된 아이들도 있어서 어색해하는 분위기가 잠시 맴돌았지만, 조장을 뽑고 조 이름, 조 구호를 만들면서 금방 떠들썩해졌다. 제일 어린 친구를 조장으로 선출하여 자기 조의 이름과 구호를 가장 씩씩하고 예쁘게 소개하는 사람에게 파스타 메뉴를 먼저 고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임이 진행됐다. '호박엿', '패션프랑크', '로열록' 등 특목 튀는 조 이름과 '아자아자 파이팅!'과 같은 조 구호를 울동까지 가미하여 발표하는 아이들은 씩스러워도 용기를 내보았고, 봉사자들은 이를 아낌없이 칭찬해주었다.



### 요리로 교감하고 대화로 친해진 특별한 시간

이번에 만들 요리는 파스타. 조별로 크림, 토마토, 마티나타, 굴라쉬, 감베로 판체타 다섯 가지 파스타를 나누어 만들게 되었다. 파스타 요리는 처음이라는 아이들과 평소 주방과 멀리 지냈던 남직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요리하는 것이 서투르기 그지없었지만, 공부방 선생님의 도움도 받고 양파 냄새에 눈물도 흘려가며 복닥복닥하다 보니 금방 훌륭한 요리가 완성되었다. 얼마나 맛있게, 예쁘게, 안전하게 만들었는지 공부방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에게 평가를 받아 선물 수상식까지 진행한 후, 직접 만든 파스타와 키친101에서 제공하는 피자를 맛보는 시간이 왔다.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는 아이들과 봉사자들은 그새 '절친'이라도 된 듯 했다.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김장 돕기 봉사활동

#### 어르신들의 맛있는 겨울을 위한 정성

연일 영하로 떨어져 한겨울을 방불케 하는 날씨가 계속되던 11월 말. 인더스트리얼 부문 직원들이 김장 돕기 봉사활동을 하는 30일이 되자 거짓말처럼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갔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모인 우리 회사 직원들은 의욕이 넘쳐 걸뚫도 훌훌 벗어던졌다. 이날 이들은 10kg씩 350박스, 총 350kg의 배추에 김치 속을 채운 후 포장하여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전달할 예정이었다.



#### 김장의 꽃 수육과 함께 마무리

분주히 정성을 다하다 보니 어느새 '김치의 달인'이 되어, 서로 갓 양념한 김장김치 한 장씩을 먹여주기까지 하는 여유도 부린 봉사자들. 김치통 하나에 약 두 포기 반씩을 포장하여 나중에 어르신들을 방문할 돌보미들이 하나씩 배달할 수 있도록 창고 안으로 옮기면서도 그간 밀린 이야기를 나누느라 힘든 줄도 몰랐다. 마침내 김장이 모두 끝나고 뒷정리까지 말끔히 한 후, 김장김치와 수육으로 늦은 점심을 한 인더스트리얼 부문 직원들은 도움의 기쁨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비록 서툴지만 열심을 다했다.



#### 서툰 솜씨에도 넉넉한 마음을 담다

앞치마와 고무장갑, 두건과 토시를 둘러 김장을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인더스트리얼 부문 직원 여덟 명. 김장은 양념을 큰 통에 부은 후 절인 배추를 옮겨 버무린 후 박스에 포장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봉사자들은 자신만만하게 자신이 맡은 일에 착수했지만, 어찌 하는 품들이 영 어설퍼다. 요즘 김장을 하는 집이 많이 없다 보니 김장 자체를 처음 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맨 뒷장부터 한 장씩 배추잎을 넘겨가며 김치 속을 버무리고 다 버무리면 속임으로 한번 써서 양념이 빠지지 않게 위로 향하여 통에 옮겨놓는 일은, 남자들의 투박한 손길로는 실수만발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우리 회사 직원들은 자신들의 넉넉한 마음만큼 양념을 넣고, 그나마 김장을 해보았던 직원들과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곧 꽤 그럴듯하게 속을 채운 배추를 내놓을 수 있었다.



### 성모보호작업장 체육 활동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은 10월 26일 신금호역 근처에 위치한 지적장애인 재활시설 성모보호작업장을 방문했다. 성모보호작업장 근처 응봉공원에서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의 단체 체육 활동을 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마음의 문을 여는 기회를 가졌다.

### 신애원 낙엽 쓸기 봉사

경영지원부문 임직원 9명은 11월 23일 아동복지시설 신애원에 방문하여 건물 주변에 떨어진 낙엽을 쓸고 청소했다. 낙엽이 쌓여있던 거리와 건물 곳곳이 깨끗해진 모습을 보고 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깨끗해짐을 느끼는 뜻깊은 경험이었다.



### 성체지역아동센터 생일파티

12월 10일, 파주시 소재 공부방 성체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 8명의 서울사무소 사업관리팀원들은 생일을 맞은 아동들의 생일파티를 진행했다. 파티는 물론 아동들의 기타 연주도 듣고 맛있는 음식도 먹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성모보호작업장 크리스마스 파티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은 12월 21일에도 성모보호작업장을 방문했다. 9명은 귀마개와 장갑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포장하고, 9명은 지적장애인들과 크리스마스트리를 꾸몄다. 지적장애인들과 크리스마스 소원 카드도 작성하고, 산타로 변장한 봉사단원이 선물을 직접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 세플러의 손과 발이 될 새 일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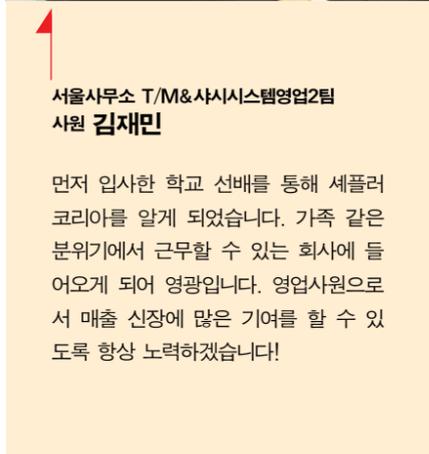
서울사무소 T/M&사시시스템영업2팀  
사원 김선우

아버지께서 평소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하기를 추천하셨었는데, 채용사이트 공고를 바탕으로 많은 검색을 통해 좋은 회사임을 알게 되어 입사를 결심하였습니다.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모든 일에 임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경영지원팀  
사원 조세영

다양한 법률업무를 경험하고 싶어 사내변호사를 희망하고 있던 차, 외국계 기업인 세플러코리아에 매력을 느껴 지원하였습니다. 세플러가 세계 최고가 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Together, we move the world!



서울사무소 T/M&사시시스템영업2팀  
사원 김재민

먼저 입사한 학교 선배를 통해 세플러코리아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업사원으로서 매출 신장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전주공장 품질보증팀  
사원 김주홍

학교 교수님의 추천으로 처음 알게 된 세플러코리아의 베어링을 직접 졸업작품에서도 사용해본 것을 인연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열심히 배워 한 사람의 몫을 충분히 다하는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안산공장 설비보전팀  
사원 권도영

산업부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에 경력으로 입사하게 된 만큼, 빨리 적응하여 팀과 세플러에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세플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 합니다. 세플러코리아, 아자 아자 파이팅!



안산공장 공장운영실  
사원 유예술

동아리 선배가 즐겁게 회사에 다니는 모습을 보고 좋은 회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 저도 세플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업무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전주공장 공정기술팀  
사원 김부태

2006년 세플러코리아에서 약 한 달간 현장실습을 하면서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로 입사하게 되어 기쁩니다. 2014년 말의 해,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세플러인 모두 역동적인 한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기술사업부 공정개선팀  
사원 이창민

취업 준비를 하던 중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세플러코리아를 알게 되었고, 제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30년 이상 일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산공장 생산팀  
사원 김명훈

정밀부품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우리 세플러코리아! 작은 보탬이나마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생산팀에서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세플러인으로 성장해나가겠습니다.



- 연구소  
전용기개발팀  
최세용 사원



## 세월의 흐름이 가족 간의 사랑을 더 아름답게 합니다

세월의 흐름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결혼 20주년을 맞이하여 가족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보니  
마냥 철부지 같던 어린 아이들이 어느덧 훌쩍 커  
어여쁜 숙녀로 변해버린 모습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세월의 흐름이 이렇게 아름답고 감격스런 한 순간을 장식하고 있네요.  
가족의 사랑과 힘이 얼마나 훈훈하고 정겹고 아름다운지 느끼게 됩니다.  
가족의 사랑이 가장 큰 기쁨이라 여기며,  
오늘도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 SCM&구매사업부 수급팀 용미정 사원,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

현재 대한민국에서 타결된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는 10건.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국 FTA, 한-터키 FTA, 한-콜롬비아 FTA 협정이 발효되었다. FTA는 추가적으로 더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대한민국이 중국, 일본과도 협정을 체결한다면 수출입 물품 90% 이상이 FTA 흐름 안에서 거래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플러 내에서 이러한 상황에 발맞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SCM&구매사업부 수급팀 통상지원파트. 대한민국에서 발효 중인 FTA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2만 개가량의 취급품목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원산지 판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업 부서와 협업하는 한편 인바운드 LTVD, HS코드 관리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SCM&구매사업부 수급팀 통상지원파트 구성원 개개인 역시 이런 FTA 무역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용미정 사원도 그중의 하나. 그녀는 연일 높아지는 관심을 받고 있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벌써 1년 전에 취득했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이란, 기업의 관세 특혜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협정, 품목 분류, 수출입통관, 원산지 판정 및 증명, 관리 등의 이해도 및 업무 능력을 검정하여 원래 정부에서 부여하던 원산지 관리서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생김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취득을 하여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용미정 사원은 그간의 노력이 보람찼다.

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여 그 분야의 검증된 전문인으로 거듭난 용미정 사원의 노력은 FTA와 관련된 시스템을 원활하게 만들며 노력하는 SCM&구매사업부 수급팀 통상지원파트의 노력과 맞닿아있다. 현재 SCM&구매사업부 수급팀 통상지원파트에서는 한-터키 FTA, 한-콜롬비아 FTA와 관련된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항상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현업 부서 및 고객에게 신속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플러코리아가 글로벌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데 일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좌측부터) 라혜원 부장, 김정훈 대리, Mr. Wyspock, 용미정 사원, Mr. Wolf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용미정 사원

### 서울사무소 · 마라톤 동호회 모임



10월 20일, 서울사무소 마라톤 동호회 회원 7명이 2013년 서울마라톤에 출전하였다. 청계천을 돌아 서울시청 앞으로 돌아오는 10km 코스에 2명, 뚝섬유원지로 돌아오는 하프코스에 5명이 출전하여 동호회원 완주를 기록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서울사무소 · 2013년도 네 번째 타운 홀 미팅 개최



11월 27일,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2013년도 네 번째 타운 홀 미팅이 진행되었다. 타운 홀 미팅은 자사의 세일즈 현황 및 시장 트렌드에 대한 Mr. Andersson(세플러코리아 CFO)의 발표로 진행되었고, 발표가 끝난 뒤에는 참석자들이 발표 내용뿐만 아니라 회사의 현황에 대해 궁금했던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유로운 토론이 오갔다.

### 서울사무소 · 농구 동호회 모임

12월 7일, 서울사무소와 전주공장 농구 동호회의 사업장 대항전이 있었다. 영등포구 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항전에서 서울사



무소 동호회원들은 박빙의 승부를 벌였으나 전주공장에 이슬아슬하게 패하여, 경기는 전주공장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 서울사무소 · 축구 동호회 모임



11월 15일, 용산 아이파크몰에 위치한 실내 풋살장에서 축구 동호회 4분기 모임이 있었다. 아이파크몰은 회사와 접근성이 좋아 매 분기 이곳에서 축구 동호회의 축구 경기가 열린다. 이날도 중부시판영업팀과 서울사무소의 동호회원들이 함께 모여 경기를 즐겼다.

### 안산 · 안산공장 야구 동호회



2009년 1월 3일에 창단된 안산공장의 야구 동호회는 창단 당시 9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25명의 선수가 활약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안산 토요 단원A리그(4부리그)에서 7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안산공장의 야구 동호회는 공설 야구장에서 주기적으로 만나 함께 야구 경기를 즐기고 있다.

### 안산 · 2013년 노사간부 워크숍 개최



12월 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노사간부 워크숍이 있었다. 노사간부 29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각 팀별 현안 문제에 대한 토의 및 발표 후 공장장 간담회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며, 노사간부가 한자리에 모여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눈 유익한 시간이었다.

### 안산 · MOVE Day 실시



지난 12월 19일 안산공장 MOVE Day행사를 실시하였다. 금번 MOVE Day에서는 2014년도 안산공장 MOVE Roadmap, 각 팀의 2013년 MOVE 활동과 2014년도 계획 및 My Machine 활성화 방안 등이 발표되었다. 또한 워크숍 우수사례로 생산팀의 Strut Bearing 조립라인의 셋업 시간 단축 워크숍 결과가 발표되었고, 운영실에서는 Advanced Kanban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 금번 MOVE Day 행사는 MOVE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의 MOVE 활동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 전주 · 봉사활동 실시



전주공장에서는 음악 동호회 및 부서 단위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10월 19일에는 테이퍼/휠베어링 생산2팀, 공장운영실 직원 및 가족 15명이 임마뉴엘 동산을 방문하여 시설 대청소 및 감 수확을 도왔고, 11월 16일에는 볼베어링 생산3팀 직원 및 가족 13명이 소화진달네집에 방문하여 시설 청소 및 식재료 준비를 도왔다. 12월 18일에는 음악 동호회 7명이 소화진달네집을 방문하여 음악 공연을 하며 연말 소외된 이웃들과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 전주 · 밝은 세상 만들기 장학금 전달식



12월 5일 전주공장에서는 2013년 장학금 전달 행사가 있었다. 전주공장에서는 매년 전 직원이 급여의 일부를 모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는 어린이재단에 등록된 한부모 자녀 17명과 협력업체 자녀 5명에게 각 5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하여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였다.

전주 · 전주공장 산행 실시



12월 9일, 전주공장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단합을 위해 산행을 실시하였다. 전주공장과 협력업체 365명이 참가하여 부안 마실길 코스를 걷고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전달하였다. 우천이었지만 마실길 우측 바다 전경을 바라보며 걷는 산행을 통해 직원들이 단합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전주 · 전주공장 제4회 Benchmarking Festival



11월 21일~22일, 전주공장에서는 제 4회 Benchmarking Festival을 개최하였다. 각 팀별 2건의 개선 사례를 전시하였고, 1등 50만 원, 2등 30만 원의 상금을 전달하며 애로사항, 제안, 느낀 점을 공유하였다.

전주 · 커뮤니케이션 데이



전주공장에서는 생산 현장의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찾아 해결하고 팀별 원활한 의사소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10월 7일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커뮤니케이션 데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주 · 특별 후원금 성금 모금

전주공장 열처리 생산1팀에 근무하는 이강호 사수가 신부전 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으나 쉽게 호전되지 않아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며 병마와 싸우고 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강호 사수를 위해 전주공장 직원들의 성금, 회사 출연 기부금 총액 1,898만 원을 12월 월례조회에서 전달하였다.

창원 · 크라이슬러 연간감사 시행

창원공장 품질보증팀에서는 11월 22일 Chrysler로부터 Annual Audit를 받았다. 당사는 Chrysler에 Tapered Roller Bearing을 공급하고 있으며 본 Annual Audit는 양산 이후 당사의 제품이 고객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여 생산하는지에 대한 점검이었다. 이번 Chrysler Annual Audit는 한국 SQE 담당자가 진행을 하였으며, 점검 결과 특별한 지적 사항 없이 지속적으로 High Quality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품질보증팀은 이와 같은 당사 제품에 대한 고객의 높은 만족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발품질/공정품질/고객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Audit 소감을 밝혔다.

창원 · 2013년 하반기 준비교체 셋업단축활동 경진대회

12월 12일(목) 창원공장에서는 “2013년 하반기 준비교체 셋업단축활동 경진대회”가 실시되었다. 본 경진대회는 지난 2010년 다품종소량생산체제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처음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대회로 8회째를 맞았다. 창원공장 8개팀, 전주공장 3개팀으로 총 11개팀이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친 결과 이번 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는 전주공장 불베어링 생산3팀이 차지하였다. 우승팀에는 50만 원, 은상 2개팀에는 30만 원, 동상 3개팀에는 20만 원 그리고 참가팀들에게는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심사위원들은 해가 갈수록 발표되는 내용들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상호 벤치마킹을 통한 셋업 단축의 강점이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창원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우수 사업장 포상

창원공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최한 “201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에서 시범사업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어 2013년 10월 17일자로 5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할당 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탄소배출권을 사야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5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창원공장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

창원 ·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전사 워크숍 실시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전사 워크숍이 실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각 사업장별 환경관련 담당자가 참석하였고, 2014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법인 지정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 되었다.

연구소 · SMB 워크숍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용기 개발팀은 SMB(Special Machine Building) HQ의 Alexander Backer씨 등과 함께 Training Offering Process Special Machine Dept.를 통하여 그룹 프로세스인 P173752 “Ordering Processing in Machine Systems Development”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축구센터에서 풋살 경기를 하며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하여 2014년 그룹으로부터의 설비 수주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연구소 · 수요 강독회



연구소 제품기술팀은 지난 9월부터 매주 수요일, 출근 직후 오전 시간을 활용하여 <Essential Concepts of Bearing Technology>를 교재로 강독회를 실시하고 있다. 첫 강독자였던 연구소장을 시작으로 매회 자율적으로 강독자를 바꾸어가고 있으며, 최신 베어링 공학에 대한 학습을 통해 제품개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연구소 · 재료그룹 워크숍



재료파트장으로 이재성 수석연구원이 선임됨에 따라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대구 팔공산 인근 펜션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새로이 업무를 분장하고 2014년 수행과제를 개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소 · 코팅(Coating) 세미나



Competence Center Surface Technology 소속 Dr. Helmut Schillinger 등은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창원연구소를 방문하여 코팅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 개발되고 있는 센서베어링 등에 코팅기술을 응용해 신제품을 고부가가치화시키기 위한 기술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 서울사무소 외

### 2013. 10

글로벌영업팀  
송형철 | 6일  
모친 회갑

글로벌영업팀  
송형철 | 6일  
부친 회갑

Business기획팀  
박현성 | 19일  
본인 결혼



중부물류센터  
정우진 | 19일  
본인 결혼



### 2013. 11

남부물류센터  
김해경 | 3일  
본인 결혼

인사팀  
이선희 | 9일  
모친 회갑

T/M사시스템사업부  
김홍진 | 13일  
장모상

T/M사시스템영업2팀  
황경화 | 15일  
모친 회갑

구매팀  
손현호 | 16일  
본인 결혼



### 2013. 12

중부직납영업팀  
정진호 | 14일  
본인 결혼



## 창원공장

### 2013. 09

테이퍼롤러 생산팀  
강명수 | 2일  
장모 회갑

볼베어링 생산1팀  
황성호 | 3일  
장모상

테이퍼베어링 열처리팀  
최종대 | 3일  
자녀 출산

테이퍼롤러 생산팀  
조영재 | 4일  
부친상

볼베어링 열처리팀  
김종일 | 5일  
부친상

단조팀  
김중년 | 6일  
장인상

선삭팀  
고경찬 | 6일  
자녀 출산

선삭팀  
진봉석 | 8일  
자녀 결혼

설비보전3팀  
박상내 | 8일  
본인 결혼

테이퍼롤러 생산팀  
공동열 | 17일  
장모 회갑

테이퍼롤러 생산팀  
김동주 | 23일  
모친 회갑

테이퍼베어링 열처리팀  
신승수 | 23일  
자녀 출산

볼베어링 생산2팀  
김남영 | 24일  
장인 회갑

테이퍼베어링 열처리팀  
임대현 | 25일  
모친 회갑

볼베어링 생산2팀  
김기환 | 30일  
모친상

유틸리티운영팀  
김정기 | 30일  
모친상

### 2013. 10

공정개선팀  
이중원 | 1일  
모친 회갑

2PU장  
양승욱 | 19일  
부친상

유틸리티운영팀  
허성열 | 11일  
장인상

선삭팀  
임삼수 | 12일  
자녀 결혼

유틸리티운영팀  
이진원 | 13일  
본인 결혼

품질보증팀  
이범주 | 13일  
본인 결혼

공정기술사업부  
박종현 | 19일  
자녀 결혼

볼베어링 생산1팀  
신동기 | 25일  
장인상

선삭팀  
유광철 | 25일  
자녀 결혼

테이퍼베어링 생산팀  
이완석 | 26일  
자녀 결혼

볼베어링 생산2팀  
강형구 | 27일  
부친 회갑

### 2013. 11

설비보전1팀  
신태식 | 2일  
자녀 결혼

설비보전1팀  
이동규 | 7일  
부친상

테이퍼베어링 열처리팀  
이길만 | 7일  
장인상

선삭팀  
김강철 | 9일  
장모 회갑

볼베어링 생산2팀  
이영일 | 13일  
모친상

유틸리티운영팀  
송남주 | 17일  
장인상

테이퍼롤러 생산팀  
강영수 | 24일  
장인상

단조팀  
문석찬 | 25일  
장인상

볼베어링 열처리팀  
배수환 | 28일  
장인상

품질보증팀  
박서환 | 29일  
장모 회갑

사업관리팀  
정호상 | 30일  
본인 결혼

### 2013. 12

공정개선팀  
문성호 | 2일  
자녀 출산

볼베어링 생산2팀  
정세권 | 3일  
부친상

생산관리팀  
서성민 | 15일  
부친 회갑

## 안산공장

### 2013. 09

설비보전팀  
윤기현 | 11일  
모친상

생산팀  
박기숙 | 16일  
사부상

수급팀  
김정호 | 18일  
장모상

공정운영실  
심동화 | 25일  
부친상

수급팀  
김정훈 | 28일  
본인 결혼

설비보전1팀  
이동규 | 7일  
부친상

테이퍼베어링 열처리팀  
이길만 | 7일  
장인상

공정기술팀  
송동혁 | 1일  
부친 회갑

품질보증팀  
왕재현 | 1일  
장인상

품질보증팀  
임성진 | 2일  
장인 칠수

품질보증팀  
안정민 | 19일  
본인 결혼

생산팀  
임승현 | 28일  
장모 회갑

엔진시스템개발팀  
변지원 | 30일  
모친 회갑

### 2013. 11

공장운영실  
남형재 | 13일  
장모상

생산팀  
이정희 | 17일  
자녀 결혼

### 2013. 12

생산팀  
정승화 | 1일  
본인 결혼



설비보전팀  
유갑수 | 3일  
장인상

## 전주공장

### 2013. 09

볼베어링 생산3팀  
김동국 | 16일  
자녀 출산

설비보전팀  
안귀운 | 26일  
부친상

테이퍼/휠베어링 생산2팀  
조규찬 | 2일  
모친 회갑

설비보전팀  
이정주 | 7일  
장인상

열처리 생산1팀  
정상진 | 21일  
자녀 출산

테이퍼/휠베어링 생산2팀  
구자영 | 25일  
장모 회갑

열처리 생산1팀  
김석철 | 28일  
모친 회갑

2013. 11

테이퍼/휠베어링 생산2팀  
박태문 | 1일  
장인 회갑

협력사품질기술파트  
한서훈 | 1일  
모친 회갑

볼베어링 생산3팀  
강향숙 | 6일  
모친상

볼베어링 생산3팀  
한기동 | 6일  
장모상

설비보전팀  
김영철 | 13일  
형남상

열처리 생산1팀  
김도현 | 18일  
조모상

품질보증팀  
정병렬 | 20일  
모친상

협력사품질기술파트  
조완신 | 22일  
부친 회갑

품질보증팀  
이재익 | 27일  
자녀 출산

### 2013. 12

테이퍼/휠베어링 생산2팀  
이재영 | 2일  
자녀 출산

테이퍼/휠베어링 생산2팀  
박한규 | 12일  
부친상

## 연구소

### 2013. 09

제품기술팀  
임공섭 | 18일  
장인 회갑

제품기술팀  
구경민 | 28일  
본인 결혼

### 2013. 10

전용기개발팀  
최낙중 | 18일  
자녀 결혼

제품기술팀  
이상우 | 18일  
조모상

### 2013. 11

제품기술팀  
박진영 | 1일  
장모 회갑

전용기개발팀  
손홍락 | 2일  
본인 결혼

제품기술팀  
최재원 | 3일  
본인 결혼

전용기개발팀  
배상길 | 16일  
본인 결혼

### 2013. 12

제품기술팀  
강승백 | 8일  
장모상

나도  
기자다

〈세플러+원〉 신입 사보 주재기자를 소개합니다

# 세플러코리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김형덕 차장

정진호 대리

## 서울사무소

### Business 기획팀 김형덕 차장

〈세플러+원〉이 처음 출간될 때 주재기자가 되었습니다. 중국 해외파견 근무 5년 후 지금 일하고 있는 팀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주재기자를 시작합니다. 초창기 멤버로서 지난 시간 사보가 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이 읽혀질 수 있고 이용될 수 있는 사보를 만들고 싶습니다. 항상 다음 출간이 기다려지는 사보를 만들겠습니다.

## 서울사무소

### 중부직납영업팀 정진호 대리

원래 알던 사람들부터 처음 만나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을 즐기는 편입니다.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 욕구로 지원하였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과 같은 설렘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사보에서 진행하는 모든 코너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며, 항상 초심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세플러+원〉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신입 사보 주재기자로 선발된 새로운 얼굴이 독자 여러분에게 활찬 각오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소식을 보다 알차고 발 빠르게 전달할 사보 주재기자들을 소개합니다.